

영화진흥위원회
2022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작품명	거기서 거기
-----	--------

작품 기획안(개요)

구분	내용
작품명	거기서 거기
장르	드라마
기획의도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보편성을 이야기 하고자 함.
로그라인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는 야한 농담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개그맨 대길. 하지만 현실에선 사랑하는 아내와의 성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다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와 하룻밤 실수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다.
스토리 주요내용	<p>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개그맨이자 MC인 대길. 그의 특기는 선을 넘지 않는 아슬아슬한 야한 농담이다. 하지만 대길은 막상 집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한번도 만족시키지 못한 못난 남편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길은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이자 고아원 동기이기도 한 태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태형은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의 운영자이면서 여자를 만족시키는데 탁월한 능력과 조건의 소유자이다. 태형은 대길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작업실(?)로 대길을 초대하고,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태형과 대길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지게 된다. 태형은 사실 남녀 모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인물이었고, 대길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태형에게 형제 이상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육체적 욕망은 그칠 줄 몰랐고 대길은 점점 아내인 서령에게 소홀해지고 있었다. 한편 서령은 대길에게서 성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병원을 찾아가게 된다. 병원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성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령은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대길을 기다린다. 같은 시각, 대길은 태형으로부터 두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집으로 돌아 온 대길은 그 동안 자신과의 잠자리에서 느끼지 못했다는 서령의 고백을 핑계 삼아, 아내를 지키기 위한 이혼을 결심한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대길의 말을 믿지 못하는 서령을 속이기 위해 대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파트너를 구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트랜스젠더가 되려고 하는 이안이 그 자리에 나오게 된다. 서령을 속이고 힘들어하던 대길은 이안과 술을 마시게 되고, 이안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임을 알게 된다. 서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친해진 둘, 갈 곳이 없어진 대길은 이안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고, 그곳에서 이안의 여동생인 지안을 만나게 된다. 지안을 통해 이안의 힘든 과거를 알게 된 대길은 이안을 돕기 위해 그녀가 일하는 스탠딩코미디 바에 방문한다. 대길을 소재로 큰 웃음을 터트린 이안은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고, 이 영상을 서령이 보게 되면서 이혼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다. 대길은 급하게 서령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려 하는데 잠적했던 태형이 나타나 폭로를 하고 도망친다. 도망치던 태형이 차에 치여 사망하고, 대길은 그때부터 10년 동안 자취를 감춘다. 10년 후 죽음을 눈앞에 둔 대길이 자신이 든 책을 들고 다시 세상 앞에 서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p>
작품경쟁력 /기대효과	<p>흔하지 않은 소재를 상업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 / 소수자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사회적인 영화.</p>

작품 기획안(등장인물 소개)

구분	내용
등장인물 소개	<p> 마대길 : 주인공. 40대 남성. 작은 키. 호리호리한 몸매. 평범한 외모. 야한 농담을 특기로 하는 개그맨이자 사회자. 천성이 착하고 소심하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성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극단에서 청소를 하다 우연한 기회로 인기를 얻게 된다. </p> <p> 양서령 : 여주인공. 30대 여성. 큰 키. 날씬한 몸매. 뛰어난 외모. 마대길의 아내이자 여배우. 어린 시절부터 대길, 태형과 같은 극단에서 활동하였다. 정신적인 문제로 성적 불감증을 겪고 있다가 해결법을 찾게 된다. </p> <p> 장태형 : 40대 남성. 대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고아원 동기. 큰 키. 날렵한 몸매. 뛰어난 외모. 대길, 서령과 함께 극단 생활을 하다 폭행사건을 일으킨 후 호스트바에서 일하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서령을 짝사랑해 왔으며 대길을 친형제처럼 생각한다. </p> <p> 유이안 : 20대 남성. 여성이 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 보통 키. 날씬한 몸매. 뛰어난 외모. 무명 스탠딩 코미디언. 어린 시절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 </p> <p> 유지안 : 20대 여성. 유이안의 여동생. 권투선수. 보통 키. 날씬한 몸매. 보통 외모. 어릴 적부터 여렸던 오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강해진 여동생이다. 여자들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여자 타입. 양서령의 팬이다. </p>

시나리오 본문

#1. 타이틀 시퀀스.

원작 破岳 夫件 “そこからそこまで”

어두운 화면에서 대길의 내레이션이 나온다.

대길

이것은 한때 국민 개그맨이었던 나의,
별 볼일 없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성의 없는 손글씨로 타이틀 나타난다. [거기서 거기]

#2. 방송국 스튜디오. 밤.

예능 프로 스튜디오 무대 위에서 토크쇼가 진행 중이다.

무대 가운데 놓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소파가 비스듬히 마주보게끔 놓여 있다.

소파의 한쪽엔 진행자인 대길과 그의 파트너인 여자 진행자가 앉아있다.

맞은편에는 말쑥한 느낌의 남자 배우가 화보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진행녀

(웃으며) 그래서 선규씨는 여자의 외모 중에 어딜 가장 먼저 보시나요?

남배우

(손을 모으고 입을 가린 채 고민하다가) 눈...이라고 하면 너무 거짓말
같나요?

방청객석에서 웃음소리와 야유가 뒤섞여 나온다.

진행녀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남배우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알겠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손? 제가 손이 좀 큰 여자분을 좋아해요.

방청객석에서 오~하고 탄성이 나온다.

진행녀

(놀람) 어머! 그거 특이하다~

대길이 유난스럽게 엉덩이를 들썩인다.

대길

(놀리듯이) 아니 지금 그 말은 본인 자량이 조금 섞여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진행녀를 보며) 아니~ 좀 그렇자나요!

0.5초 정도의 정적이 흐르다가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온다.

방청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친다.

진행녀가 웃음을 뺀 터트리며 핀잔하듯 대길의 어깨를 탁!하고 친다.

남배우는 빨개진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소파 뒤로 넘어갈 듯이 몸을 짓힌다.

#3. 스튜디오 안. 밤.

시간경과.

방송을 마치는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수를 보내는 관객들에게 일어나 손을 흔들며 무대를 내려가는 세 사람.

차고 있던 마이크를 빼고 있는 대길에게 남배우가 다가와 양손 엄지를 치켜세운다.

남배우

대길형님, 역시~ 최고입니다! 덕분에 영화 홍보도 잘 되고, 방송도 너무 재밌게 나올 거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행녀

(대길을 향해) 으이그!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그런 드립은, 진짜 천재아냐?

오빠는 24시간 동안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지?

진짜 서령이는 이런 남자랑 힘들어서 어떻게 산대니?

아주 매일매일 그냥~! 응?

개가 갈수록 날씬해지는 이유가 다 여기 있었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도 오빠랑...

(퍼뜩) 어머 나 뭐래니!

(애교) 암튼 오늘도 완전 대박이었고~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라버니~!

진행녀가 대길에게 윙크를 날리며 방송국 복도를 걸어간다.

진행녀의 매니저, 스타일리스트가 하인들처럼 종종 걸음으로 그녀를 따라간다.

웃으며 여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대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진다.

대길

(냉랭한 말투로) 살이야 굶으니까 빠지는 거고 이 년아, 뭘 안다고 떠드니...

(큰 소리로) 성실장!...성종태! 아직 얘기 안 끝났냐? 가자 빨리!

담당PD와 얘기 중이던 종태가 다급히 대화를 끝낸다.

PD와 스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대길을 향해 뛰어오는 종태.

종태

예, 형님! 이제 가지면 됩니다. 다음 주도 여기서 그대로라네요?

가지쇼, 가지쇼! 훈기가 입구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대길

그래, 작가들한테 다음 주 의상 컨셉 받았지? (종태 끄덕끄덕)
병기형 저 가요~다들 다음 주에 봅시다!!

대길이 소리치며 손을 흔들자 담당PD가 모니터에서 고개를 들고 손을 흔든다.

#4. 차량 안. 밤.

도로를 달리고 있는 밴.

뒷좌석을 한껏 재깁 대길이 누워 있고, 조수석에 종태가 앉아 있다.

훈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엔 집중하고 있다.

대길의 전화기에 진동이 온다.

액정에 ♡마누라♡라는 이름이 뜬다.

대길

(힘 없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서령

(차분한 목소리) 응, 여보. 오고 있어?

대길

어, 가고 있지 그럼~ 이제...

대길이 말을 끝자 훈기가 재빨리 알려준다.

훈기

(핸드폰 내비를 보고) 27분 뒤 도착입니다.

대길

27분 뒤 도착이라네.

서령

알았어. 저녁은?

대길

별로 생각 없어. 여보, 촬영 있다더니 일찍 들어왔네?

서령

어어, 이번에 주인공 맡은 친구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다른 촬영이랑 바뀌어. 아침에 현장 갔다가 바로 들어왔어.

대길

누구? 아이돌 출신이라는 개?

(짜증) 아니 왜 당일 날 그러냐? 프로답지 못하게~

기왕 나간거 친구들이나 좀 만나지 그랬어?

서령

어...아니 갑자기 부르려니깐 좀 그래서~
그 친구가 오빠 팬이라더라? 전해달래

대길

그래? 뭐 그러시겠지...어느 그룹이랬더라?
병기형한테 얘기해서 한번 불러달라고 해야겠네.

서령

몰라~나 걸그룹 관심 없자나...
나 좀 피곤하다 나머진 들어오면 얘기해. 이제 끊어.

대길

그래 다 와가. 금방 갈테니까...그래 끊어~

대길이 전화를 끊자마자 종태가 아는 체를 한다.

종태

형수님 딸로 나오는 친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즈핑크에 천수진이잖아요! 그 친구 요즘 완전 핫한데?
그 친구가 형님 팬이래요?
(따봉) 오~ 역시 국민 줄타기꾼! 아이들도 반하는 입담!
병기PD님한테 바로 문자 넣을까요?

대길

(정색) 종태야, 넌 애는 참 착한데, 행동에 비해서 그 주둥이가 너무 앞서.
형이 그거 고치라고 몇번 말했니? 너 진짜 그거 안고칠거야?

대길의 정색에 머쓱해진 성실장이 훈기와 대길의 눈치를 살핀다.

종태

(시무룩) 네...형님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핸드폰에 눈을 고정하고) 그래 성실장, 우리가 한두 해도 아니고
이런 걸로 뭐 내가 널 어떻게 하겠냐만
그래도 아티스트 기분 좀 배려해주는 거 어려운거 아니자나~ 그지?

종태

(뒷자석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이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5. 대길의 집 앞. 밤.

고급 빌라 앞에 뱅이 들어와 건물 입구 앞에 선다.

훈기

(대길에게)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종태가 재빠르게 내려 차문을 연다.

대길

(내리며) 대표는 무슨~ 형이라고 부르라니깐, 훈기야.

나 들어간다. 내일 보자.

(종태에게) 내일은 몇 시부터라고?

종태

(얼어서) 네. 내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대표...아니 형님.

대길이 피식 웃으며 종태의 어깨를 툭 치고 집으로 걸어 들어간다.

#6. 대길의 집 화장실. 밤.

고급 빌라의 큰 화장실 안.

잠옷을 입은 대길이 양치를 하고 있다.

머리는 젖어 있고 메이크업이 지워진 민낯이다.

대길이 컵으로 물을 마시고 가글을 하더니 세면대에 튀! 하고 뿜어낸다.

흰 거품이 배수구 안으로 물과 함께 사라진다.

#7. 대길의 집 서재. 밤.

책이 빼곡이 꽂힌 책장으로 둘러진 방.

한쪽에 대길과 서령의 웨딩 사진이 크게 걸려 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며 대길이 빈 서재 안으로 들어온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던 대길이 '차타레 부인의 사랑'이라는 책을 뽑아든다.

책이 꽂혀 있던 자리 뒤 빈 공간에서 작은 약상자를 꺼낸다.

약에는 '밤이 두려운 남자들의 해결사 [양기환]'이라고 써져 있다.

대길은 우황청심환처럼 생긴 환의 포장을 벗겨 입에 넣는다.

인상을 쓰며 꼭꼭 씹다가 맛있는지 인상이 풀어지며 신나서 입을 오물오물한다.

#8. 대길의 침실. 밤.

고급빌라에 어울리는 침실. 한쪽 벽에는 큰 TV가 걸려있다.

모던한 느낌의 캐노피가 설치 된 침대. 서령이 침대 한켠에 모로 누워 자고 있다.

대길이 조심조심 이불 속으로 들어가 서령의 등에 찰싹 달라붙는다.

서령이 크게 한숨을 쉬며 자신의 어깨에 올려진 대길의 손등을 쓰다듬는다.

서령

(잠긴 목소리) 응 여보~ 이제 왔어?

대길

(서령의 귀에 대고 과한 호흡으로) 응...나왔어...오래 기다렸지?

서령이 대길의 귓속말에 간지러운지 몸을 배배 꼬다가 손으로 귓바퀴를 긁는다.

서령

으응~ 간지러워~

대길

(음흉한 웃음) 그래? 그럼 여기는?

대길이 이불 속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서령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른다.

서령

(졸린 말투) 안피곤해?

대길

(장난스럽게) 응~ 안피곤해~ 애랑 나랑은 피로도가 따로따로야.

서령

(눈을 감은 채 웃으며) ㅎㅎ 알았어. 좀 더 간지럽혀 봐.

대길

(문대다가 앞뒤로 흔들기를 번갈아하며) 간질간질~간질간질~ 콧콧!
간질간질~ 간질간질~ 콧콧! 실례합니다~

서령

(웃으며) 누구세요?

대길

저 지나가던 꼬춘데요. 주인이 옷을 다 뺏어가서 너무 추워요~

서령

그래서요?

대길

잠시 몸만 좀 녹이고 가면 안될까요?

서령

그럼 저한테 뭘 해주실건데요?

대길

제가 청소도 잘하고 밭에 씨도 잘뿌리는데요~ 어떻게 안될까요?

서령이 눈을 뚱그랗게 뜨고 획하고 돌아보더니 이내 웃음을 터트린다.

서령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아 진짜 미친거 아냐? 빨리 끼고 와!

대길이 냅!하고 장난스럽게 경례를 하더니 이불 속으로 쑹!하고 사라진다.

#9. 대길의 침실. 밤.

시간경과.

한몸으로 포개진 대길과 서령.

대길이 서령에 귀에 대고 연신 신음소리를 내며 허리를 열심히 움직인다.

서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입만 벌려 거짓 신음소리를 낸다.

대길

(숨을 헐떡이며) 여보...서령아...

서령

(같이 숨을 헐떡이며) 응? 왜 오빠?

대길

여보가 위에서 할래?

서령

그래 오빠 누워~

대길을 올라 탄 서령이 허리를 흔든다. 대길이 거친 신음을 토해낸다.

서령이 배우 특유의 오버스러운 연기로 오르가즘을 연기한다.

대길이 아래에서 허리를 격하게 흔들다가 이내 발작하듯 몸을 부르르 떤다.

서령이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더니 대길의 입술에 짹 하고 입을 맞춘다.

서령

(거칠게 숨을 쉬며) 너무 좋았어. 오빠. 수고했어.

여전히 누워 숨을 헐떡이는 대길에게서 내려온 서령.

대길이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자세로 누워 잠이 든다.

대길이 이불 속에서 꿈지락 거리더니 잠옷 바지를 입고 방을 나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서령이 감았던 눈을 뜬다.

#10. 대길의 서재. 밤.

대길이 서재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다.

컴퓨터 화면에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켜져있다.

파일명은 34주차 대본.hwp이다.

대길이 타자를 치면 대길의 내레이션이 나온다.

대길

이로써 13번째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역시 크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방법은 없단 말인가.
서령이의 연기력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난 알 수 있다.
여전히 서령이는 나한테서 한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아니 없다. 확실하다. 난 알 수 있다.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

내레이션이 끝나면 타자를 멈춘 대길이 책상에 딸린 서랍 중 가장 아래 서랍을 연다.
열린 서랍 안으로 양기환을 거칠게 던져 넣는다.
서랍 안에는 코코메디, 비아그라, 해구신 등 다양한 정력 제품이 들어있다.
대길이 서랍을 탁하고 닫은 뒤 열쇠로 서랍을 잠근다.
서재 책꽂이에 꽂힌 상실의 시대를 꺼내 그 뒤에 열쇠를 숨긴다.

#11. 태형의 업소 룸 안. 저녁.

일반적인 단란주점의 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착용한 대길과
날티나는 정장을 입은 태형이 마주 앉아 있다.
태형이 크게 소리내어 웃는다.

대길

(버럭 화를 내며) 웃을 일이 아니라고 새끼야!
씨발 남은 심각해 죽겠구만!!

태형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ㅋㅋㅋ 미안미안미안, 아 근데 웃긴걸 어떡해!
어떻게 한번도 성공을 못하냐고! ㅋㅋㅋ 그것도 12번을 시도했는데!
ㅋㅋㅋ~ 아 씨발! 포기해라! 그냥. 병신아! 하하하 아 미치겠네 ㅋㅋㅋ
아이고 배야!! ㅋㅋㅋ

대길

(분통) 아 진짜! 그만 웃으라고 미친 놈아!!

태형

(크게 호흡을 조절하며) 후~ 푸하하하 후~후~!! 알았어, 알았어.
큅! 그래, 근데 서령이는 연기인지는 몰라도 좋다고 한다며, 그럼 된거 아냐?
너는 그냥 좋고, 서령이는 니가 좋은게 좋고, 그럼 그냥 그렇게 살어~ 임마.

대길

(짜증을 내며) 씨발, 너 같이 여자...
(손가락으로 천정을 가리키며) 보내는 걸 업으로 삼는 놈은 몰라!
정말 사랑하는 여자한테 홍콩이 아니라...제주도 티켓도 하나 못 끊어주는...
나 같은 놈의 심정을...

태형

(답답) 아니 그렇게 콤플렉스면 병원을 가보라니깐?
그냥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봐~!

대길

(버럭하며) 야이씨! 내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와서 병원에 그런 상담 받으러 가면 어떻게 되겠냐?
마대길 이 새끼 맨날 야한 농담하더니 알고 보니 콤플렉스 때문이었다고
소문 다 날려 야냐! 그럼 사람들이 내 농담에 웃겠냐? 비웃겠지!

태형

하 참...국민개그맨의 비애다 정말... ㅋㅋㅋ 아 근데 왜케 웃기냐! 아하하!

대길

아 이 개새끼 진짜! 내가 너 같은 놈을...하...아니다!
너라도 있으니까 하소연 할 데라도 있지.
이건 뭐 가족이라곤 와이프 밖에 없는데, 와이프랑 문제니...

태형

(빨쫂) 아 새끼 웃는 사람 미안해지게...알았어!
나도 진지하게 방법 좀 생각해 볼테니까,
다음 스케줄 비는 날 우리 집으로 와.

대길

알았어. 다음 주는 수요일이 비니까 그때 갈게.
너! 진지하게 고민해줘라, 진짜!

태형

(귀찮) 아~알았어! 새끼야. 빨리 가봐~ 나도 오픈해야돼!

대길이 문을 열고 나갈려고 하는데 문 앞을 지나던 웨이터와 마주친다.
갑자기 돌아서서 태형에게 꾸벅 인사를 하는 대길.

대길

(억지로 목소리를 변조하며 사투리) 마! 사장님 매번 고맙십니데이~
낸주 또 찾아 오겠십니더~!!
(지나가는 웨이터에게) 마! 욱 보이소~

대길이 후다닥 업소를 빠져나간다.

#12. 태형의 오피스텔 복도. 낮.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 복도.
모자, 굵은빨테, 마스크를 착용한 대길이 복도를 따라 걷고 있다.

어느 현관 문 앞에 서더니 문을 푹푹 푹푹 박자감 있게 두드린다.
태형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자 대길이 안으로 들어간다.

#13. 태형의 오피스텔 안. 낮.

낮에도 버건디색 커튼이 드리워져 어두컴컴한 태형의 오피스텔.
은은한 조명이 야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길이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를 벗으며 오피스텔을 둘러본다.

대길

(짜증) 야 집에서 보자더니 왜 갑자기 일로 오래?

태형

(잔에 양주를 따르며) 야이 새끼야, 좋은 기운 좀 받으라는 형님의 뜻을 모르겠냐?

태형이 양주를 건내자 대길이 받아 입술을 적신다.

대길

(술맛에 놀라며) 오! 야~ 이거 좋은건데? 어디서 났냐?

태형

여기 마련해주신 분이 첫날밤 기념이라고 주고 가신거야.
(코 아래서 잔을 돌리며) 이 오크 향, 죽이지 않냐?

대길이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한 모금을 꿀꺽하고 마신다.

대길

(오버하며) 역시 장태형! 아직 안 죽었어잉?
이런 멋들어진...응? 아무튼 그런 누님이 다 계시고 아주~ 굿이야 굿!

말을 끝낸 대길이 벨벳으로 덮힌 침대에 걸터 앉아 쿠션을 확인하듯 들쭉거리본다.

대길

와~ 이 침대...기운이 장난 아닌데? 아주 야한 기운이... 이야!

손으로 벨벳을 쓰다듬는 대길이 눈을 감고 촉감을 느끼며 입을 헤~벌리고 있다.

태형

아 이 변태새끼! 그만 느끼고 물건이나 보자 야.

대길

(놀란듯 눈을 크게 뜨고) 응? 무슨 물건?

태형

뭐긴 뭐야 문제의 그 물건이지 이 새끼야. 빨리 까봐!

대길

뭐라고? 너한테...

(자신의 거기와 태형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걸 보여주라고? 지금? 씨발 너 들었다?
취했어? 술에 약탄거 아냐?

태형

(덤덤하게) 뭐 어때~ 새끼야!

보육원에서 목욕도 같이 하고 다 했는데~ 남자끼리 뭘 호들갑이지? 이 새끼는?
빨리 까봐~ 임마! 뭘 봐야 나도 수선을 하던지 새로 달던지 할꺼 아냐~!

대길

(기가 찬듯) 하! 이 새끼...너...진짜 까!? 꺼내 봐!?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국민개그맨 꼬추...이거 까면 너...괜찮겠어!?

태형

(허세) 야, 마대길이! 나 장태형이야! 침대 위에 마술사! 섹스계의 카퍼필드!

(손을 펼쳐보이며) 이 손가락에 홍콩 간 분들 다 합치면 마일리지로 세계여행도 가고

(자신의 거기를 가리키며) 이거 타고 달나라 여행 가신 분들이면 일론 머스크도 나한테 안돼.
알어, 임마~?! 그러니까 빨랑빨랑 까! 이 좃만아! 이씨~ 형도 바쁘다.

대길

(태형의 기에 놀려) 진짜...까? 나 깐다?

(바지를 내리며) 그래 오냐 봐라 봐!

대길이 화난 듯 바지를 풀고 과감하게 바지와 팬티를 한번에 내린 뒤 티셔츠를 들어 올린다.
태형이 눈을 가늘게 뜨고 대길 고간에 눈을 고정한다.

태형

(한참을 보다가) 그게 다냐?

대길

(부끄러움에 더 격하게) 그래! 씨발~ 이제 좀 심각해지냐?

태형

세워봐.

대길

(당황하며) 뭐...뭐!?

태형

(당연한듯) 세워봐 새끼야. 화난걸 봐야 정확한 건적이 나올꺼 아냐

대길 아 미친 새끼, 작작해라...남자 앞에서 이걸 어떻게 세워!?

태형

(바지를 내리며) 왜? 도와줘? 혼자 까고 있으려니까 부끄럽냐?

태형이 말을 끝내자마자 옷을 훌훌 벗더니 양말만 남은 몸이 된다.

대길이가 당황하며 눈으로 천장만 훑다가 흘깃 태형의 거기를 보더니 놀라며 눈을 떼지 못한다.

대길

(호들갑) 와! 미친 씨발...너 그거 안무겁냐? 어떻게 그걸 거기 달고...와 어떻게 걸지?

와! 진짜 미친... 야, 뭐 먹고 크면 그게 그렇게...

태형

너나 나나 같은 거 먹고 컸어 새끼야! 어느 쪽에서 온 건진 모르지만 종자가 다른 거지 종자가.

대길

씨발 존나 불공평한 세상이다. 존나 불공평한 세상이야!! 근데 야 그게...설 수가 있냐?

태형

왜 보여줘? 기다려봐.

태형이 자신의 거기를 쓰다듬으며 호흡이 거칠어진다.

대길이가 너무 놀라 입을 가리며 쳐다만 보고 있다.

태형

(발끈) 뭐해 새끼야 내꺼 구경하러 왔냐?

니꺼랑 비교해봐야 될꺼 아냐! 빨리 세워~ 너도.

대길이가 흘린 듯 자신의 물건과 태형의 물건을 번갈아 보며 자신의 거기를 쓰다듬기 시작한다.

둘의 호흡이 점차 거칠어지는데, 태형이 한발짝 한발짝 대길에게 다가온다.

달을락 말락하게 가까워진 둘. 태형이 손을 내밀어 대길의 거기를 쓰다듬는다.

대길이가 아무렇지 않은 듯 자신의 거기를 쓰다듬는 태형의 손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태형의 거기를 쓰다듬는다.

태형

새끼... 어릴 때도 그러더니 커서도 존나 귀엽네.

대길

넌 이 새끼야, 어릴 때도 대단하다 싶었는데... 지금은 완전 괴물이다! 괴물! 흥폭하다야~

거기에 고정되어 있던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에게 마주치는 순간 얼굴을 마주 잡고 키스를 시작한다.

#14. 산부인과 앞. 낮.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서령이 산부인과 앞에서 택시를 잡아탄다.

#15. 택시 안. 낮.

뒷자석에 앉은 서령이 선글라스를 벗고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산부인과 여의사의 내레이션.

여의사

한서령씨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구요.
스트레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시네요.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억압을 받으신 분들이나
소아우울증으로 후유증을 겪으신 분들 중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정신과 쪽으로 상담 받으시고 약 복용하시면 아마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문젠데... 알려지신 분이래 오시기 힘드셨겠네요.
이제라도 잘으셨어요.

서령이 핸드폰을 꺼내 터치를 하고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댄다.

서령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어...여보...어떻게 전화 받았네? (...) 어~ 다시 들어가야되?
(...) 어 그래...여보...나... (...)
(울먹임을 참는다.) 아니다. 있다 집에서 얘기해. 그래~ 좀 있다 봐.

룸미러로 서령을 흘깃거리는 기사와 눈이 마주치자 서령이 선글라스를 다시 쓴다.
선글라스 아래로 눈물이 흐른다.

#16. 태형의 오피스텔. 밤.

침대 위에서 태형과 대길이 관계를 갖고 있다.
여러 자세를 가리지 않고, 애무를 해가며 열심히 한다.
그 장면들 위로 대길의 내레이션이 나온다.

대길

그 후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 듣게 된 얘기지만 태형이 놈이 그 때 그 술에 약을 탔다고 한다.
나중에 그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을 만큼
나는 태형이와의 관계에 미쳐있었다.
그때도 지금도 서령이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날 때 마다 태형이와 그 짓을 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
어쩌면 태형이 놈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그 놈은 처음부터 내가 자기를 거부하지 못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개새끼...

#17. 보육원 앞. 밤.

과거회상.

옛날 경찰관 복장을 한 남자가 어린 대길의 손을 잡고 보육원 문 앞에 선다.
남자가 대길을 한번 내려다보고 보육원 문을 두드린다.

#18. 보육원 원장실 안. 밤.

보육원 원장실 안에서 경찰관과 원장 수녀가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원장과 경찰관의 찻잔이 놓여있다.
80~90년대 초등학교 교장실의 느낌이다.

경찰관

(컵을 내려놓으며) ...그래서 애를 내쫓고 둘이서 번개탄을 피운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망한 상태로 오늘 아침에 발견 되었구요.
아이는 어제 새벽에 이웃집 문 앞에서 잠들어 있는 걸
그 집에서 신고해서 저희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출생신고도 안 됐는지 신원확인이 안되더라구요. 아이도 당연히...

원장

(성호를 그리며) 하느님! 어찌자고 저 어린 것을 두고...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아야지요.
(대길에게) 이리오렴?

원장이 대길을 향해 손짓을 하자 원장실 문 밖에서 뺨뚱히 지켜보던 대길이 쭈르르 달려와 수녀 옆에 앉는다. 드러나는 얼굴과 팔 다리에 멍이 들어있다.

원장

(대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이구 낫설 텐데 울지도 않고 아주 착하구나!
혹시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되겠니?

대길

(조용히) 대길...

원장

(환하게 웃으며) 그래? 대길이! 너무 좋은 이름이구나.
(기도) 하느님, 대길이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대길이 혹시 성이 뭔지 아니?
대.길. 두 글자 앞에 뭔가 다른 말을 붙인 건 없었어?

대길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젓는다.

원장

(대길을 다독이며) 그래 대길아 괜찮아.
대길이는 오늘부터 하느님의 품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니까, 성도 새로 가지면 돼.
그래...보자...그래 내가 마리아 수녀니까 마리아의 마를 따서 마로 하자 마!
대길아, 대길이는 오늘부터 마.대길이야. 니 이름이 뭐라고?

대길

마! 마대길...

원장

그래 그래! 아이구~ 똑똑해라! 태형아~ 밖에 혹시 태형이 있니?

원장의 부름에 태형이 조신한 몸짓으로 문 앞에 선다.

원장

그래 태형아 여기는 새로 온 대길이야. 마대길.

태형이가 8살인데 둘이 키가 거의 똑같으니까~ 대길이기도 8살이라고 하자!

내일부터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는 거야~ 대길아. 좋겠지?

태형아, 대길이란 태형이네 방에 가서 같이 자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태형이 끄덕이고) 그래~ 그럼 태형이한테 부탁 좀 할게!

대길아 가서 태형이 손 꼬옥 잡고 같이 따라가면 돼~

수녀님은 여기 아저씨랑 얘기를 좀만 더 나누고 금방 갈게 괜찮지?

그래 자~ 출발~ 손잡고! 옳지!

태형이 웃는 얼굴로 손을 내밀자 대길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는다.

태형이 대길을 잡아당기며 뛰자 대길도 덩달아 뛰어서 방을 나선다.

원장

저 방에서는 가장 똑똑한 친구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대길이 부모에 대해서 더 알게 되거나,

연고가 닿는 분들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경찰관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일어나서 모자를 쓰고 방을 나서는 경찰관과 그를 배웅하는 수녀를 비춰주며 성인 대길의 내레이션이 흐른다.

성인 대길

그러나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나를 안다거나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그 시절의 나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를 친아들처럼 생각해주는 원장님과 형제 같은 태형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19. 중학교 학단 앞. 낮.

과거회상.

부끄러워하는 표정의 여중생이 중학생 태형에게 편지를 건넨 뒤 수줍게 도망친다.

3층에서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던 태형의 반 친구들이 오~하며 소리를 지른다.

편지를 자켓 안주머니에 넣은 태형.

태형이 창문을 올려다보면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대길과 눈이 마주친다.

태형이 씩하고 웃는다.

#20. 하교하는 시골길. 낮.

논밭 사이의 두렁길을 태형과 대길이 나란히 걸어간다.

태형이 대길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다. 태형이 안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대길에게 건내준다.

대길이 변성기가 오지 않은 목소리로 여자 흉내를 내며 편지를 읽는다.

대길

(없는 머리를 귀 뒤로 쓸어 넘기는 척을 하며) 태형아 안녕?

난 2학년 3반 임정은이라고 해.

(몸을 배배 꼬며) 혹시 나에 대해 들어보았니?

난 니가 처음 입학 하던 날부터 너를 주목하고 있었단다. (어찌고저찌고...)

편지를 읽는 대길을 보며 태형이 배를 잡고 웃는다.

편지 읽는 대길의 목소리가 작아지며 성인 대길의 내레이션이 나온다.

성인 대길

그때 당시의 태형은 여자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아마 나랑 노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나는 내심 녀석이 부러우면서도 녀석의 편지를 읽는 것에 보람을 느껴가며

개그맨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21. 고등학교 교실 안. 낮.

과거회상.

시커먼 고등학생들로 시끌벅적한 쉬는 시간.

교실 뒤편에서 대길이 오지명을 흉내를 내고 있고 주변 친구들이 자지러지게 웃고 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고 폼을 잡고 있는 태형에게 친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린다.

친구

(자신의 핸드폰을 펼쳐보이며) 이거 너 보여주래

핸드폰에는 13반 아영이라고 저장된 이름으로 '태형아 오늘 마치고 뭐해?'라고 문자가 와 있다.

심드렁하게 바라보던 태형이 친구에게 말한다.

태형

아이씨, 몇 번 놀았겠다고 드럽게 귀찮게 구네!

이제 볼일 없다 그래. 아님 니가 만나던가.

친구

(놀라며) 진짜? 그래도 되? 그럼 너라 그러고 약속 잡는다?

친구가 말하고 있는데 교실의 앞문으로 선생님이 들어온다.

선생님

이거봐라 이거봐. 고3이란 것들이 조용히 자습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수능 며칠 남았다고 이려고 있어!

학생들이 후다닥 자신의 자리로 가 앉는다. 대길 역시 재빠르게 태형의 옆으로 가 앉는다.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 나왔다. 마치고 자기 성적표 찾아가고, 마대길!
너는 이 새끼야 개그맨 된다는 놈이...개그맨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거 몰라?
태형이 만큼만 하란 말이야! 같이 자랐다는 놈들이 우째 저렇게 다른지...
꼴찌가 뭐냐, 꼴지가!
으이그...아무튼 다들 성적표에 부모님 싸인 받아오고,
4분단 오늘 청소 꼼꼼히해라! 알았나? 이상~ 반장!

반장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인사를 하고 우르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22. 하교하는 시골길. 낮.

대길과 태형이 나란히 걷고 있다.
대길이 여전히 태형보다 머리의 반 정도 오게 작다.
대길의 어깨가 축 쳐져있다.

대길

아 태형아...개그맨이 꼭 머리가 좋아야 되는걸까? 아...개그맨 되고 싶은데...
(갑자기 오지명 개그를 조용히 연습한다.)

태형

도대체 개그맨이 왜 하고 싶은건데?

대길

유명해지면 좋잖아! 나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TV에 나오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혹시 아냐? 친척이라고 누가 나타날지?

태형

그래? 그럼 나도 개그맨이나 해볼까...

대길

야! 너 같은 놈이 개그맨하면 나는 어떡해! 너는...배우! 그래 배우해 배우!
쫓나 가오 잡는 거 옛 같아서 말은 안했는데,
사실 니가 요즘 드라마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보다 못할 건 없지...
여자애들이 껌뻑 죽는거 보면 분위기도 뭐~ 나쁘지 않고!

태형

야이 새끼야~ 가오 잡는게 아니고! 그냥 타고난...어른스러운 그런...응?
(답답) 에휴! 니가 뭘 알겠냐~ 그래...근데 그럼 우리 서울 가야 되겠네?

대길

지금? 당장? 우리 고3인데...

태형

야, 우리 어차피 졸업하면 저기서 나가야돼! 너 대학 갈꺼야?
어차피 성적도 안되겠지만, 누가 오라 그러면 갈 돈은 있고?
수능이 무슨 소용이야, 막말로 졸업장은 어디 쓸데나 있어?

대길

그래도...졸업식은 참석하고 싶은데...

태형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야 기왕 하기로 한 거면 빨리 실행에 옮겨야지!
우리 같은 고아 새끼들은 시작이라도 남들보다 일찍 해야~
그나마 부모 있는 애들이랑 비벼 볼 수 있는 거야!! 니가 하자며!

대길

아...알았어. 그래도 애들한테 인사는 하고 가자 응?

#23. 대길의 집 화장실. 밤.

다시 현재.

피곤한 얼굴의 대길이 양치를 하고 있다.

눈을 반쯤 뜨고 힘없이 칫솔질을 하더니 튀하고 뺨는데 거슴에 피가 섞여 있다.

응? 하고 가글을 한 뒤 거울을 보는 대길의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있다.

#24. 대길의 방 침실. 밤.

모로 누워 있는 서령의 뒤로 대길이 들어와 서령에게 등을 돌리고 눕니다.

서령

(천천히 눈을 뜨며) 수고했어...많이 피곤하지?

대길

응...요즘 스케줄이 늘어서 그런가 많이 피곤ㅎ...잘...즈...

대길의 잠든 숨소리가 방에 퍼지고 서령은 얇은 한숨을 쉬고 다시 눈을 감는다.

#25. 태형의 오피스텔 안. 밤.

정장을 입은 태형이 손을 모아 입을 가린 자세로 침대에 걸터 앉아있다.

번호기가 놀리는 소리가 나고 대길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착용한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벗으며 대길이 말한다.

대길

아 오늘은 피곤하다니깐...그새를 못 참고...

정장을 입고 있는 태형을 발견하고 대길이 놀란다.

대길

뭐야 옷도 다 입고, 왜 어디 나가게? 같이 갈 데 있냐? 나 옷이 좀 이런데?

태형이 고개짓으로 테이블 위를 가리킨다.

테이블 위에는 흰색 봉투가 올려져 있다. 대길이 태형의 눈치를 살피며 봉투를 집어 든다.

대길

이 새끼 분위기 왜 이래 이거...이거 뭔데?

뭐, 누님한테 들켰어? 아님 누님 남편이야? 너, 소송 당했냐?

말하며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보던 대길이 눈을 찌푸리며 서류를 찬찬히 훑는다.

대길

뭐야 이게? 검사소견서...에이즈 양성 확인 통보...뭐!?

(흥분)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너 에이즈야? 니가? 니가 에이즈라고?

씨발! 이게 무슨 일이야 언제부터 이런 거야? 언제부터!?

대길이 **히!참!**하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자 서류의 뒷장이 보인다.

대길이 뒷장을 집어 들어 살펴보더니 손을 떼는다.

대길

(떨림) 야...장태형, 이게 뭐냐?...이거 누구꺼야? 이 이름 없는 건 누구꺼야?

응? 이거 뭐 이거 설마 내꺼냐?...내꺼야? 응? 아니지 태형아? 이거 설마 내꺼 아니지?

(분노) 야...태형아...야 장태형!! 이 씨발새끼야 빨리 말해! 이거 내꺼 아니지? 아니잖아?

아니라고 말해 이 새끼야!! 말하라고 이 개새끼야!!

대길이 태형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손 아래 가려져있던 태형의 눈물이 드러난다.

태형이 대길을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대길이 흔들어대는 대로 몸을 휘청인다.

대길이 태형의 뺨을 때린다. 태형이 침대 위로 쓰러진다.

대길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니가 어떻게, 니가 어떻게 나한테!!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울부짖는다.) 오아!! 오아!! 서령이! 서령이는 어떡해...우리 서령이 어떡해...

서령아~서령아...장태형!! 책임져! 책임지라고 장태형! 이 개새끼야!!

어떡하냐 우리 이제 태형아 우리 이제 어떡해!!

대길이 바닥에 주저 앉아 통곡한다.

태형

(울먹이며) 좇 된 거지 뭐, 어떻게 돼 새끼야.
미안하다...미안하다...대길아... 나도 몰랐어... 씨발! 나도 진짜 몰랐다고...

#26. 태형의 업소 로비. 밤.

과거회상.

시간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어린 태형이 로비 바닥을 밀대로 닦고 있다.
웨이터가 열어준 문을 통해 고급스런 옷을 입은 중년의 여자와 멋을 한껏 부린 노년의 남자가 들어온다.
데스크에 있던 업소의 남자 매니저가 후다닥 나와 허리를 꾸벅 숙인다.

매니저

(오버하며) 누님! 어서오십쇼! 언제 오시나 한참 기다렸습니다.
(남자를 향해 다시 꾸벅하며) 안녕하십니까. 여기 매니저로 있는 양태식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여기서 다 뵙고 영광입니다!!

노년의 남자가 검지를 세워 입술 위에 갖다 대며 거만한 자세로 가게를 둘러본다.

여자

우리 선생님, 말 많은거 싫어하셔~ 조용히 있다가 갈 수 있게 좀 도와줘.

여자가 바닥을 닦다 말고 차렷 자세로 서있는 태형을 발견한다.

여자

어머! 우리 태민이! 또 만나네? 누나 안 보고 싶었어?
(남자를 보며) 선생님! 이 친구예요! 제가 머리 올려줬다는 얼굴만 애기 같다는 그 친구.
(웃음) 말씀 드린 그대로죠? 태민씨, 인사 드려 여기는 그 유명하신...말 안해도 알지?

태형이 무표정한 얼굴로 남자를 향해 인사를 까딱한다.
남자가 태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하고 룸으로 향한다.
여자가 매니저를 향해 고개와 눈짓으로 태형을 가리키며 윙크를 하더니 급하게 남자를 뒤쫓아 간다.

#27. 태형의 오피스텔 안. 낮.

커튼이 젓혀져 있는 오피스텔에 햇빛이 쏟아지고 있다.
태형이 처음 보는 듯 방안을 둘러보고 있고, 노년의 남자가 편한 복장으로 서서 태형을 관찰하고 있다.

태형

(감탄하며) 우와 아주 좋네요, 선생님.
분위기도 고급스럽고...뷰도 아주 시원한 것이...저희 오늘은 여기서 지내는 건가요?

남자

(고개를 저으며) 아니. 아니야, 태형씨.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지낼거야.

남자가 테이블 위의 서류봉투를 태형 앞으로 내민다.
태형이 봉투에 든 서류를 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본다.

태형

선생님...이건, 이걸!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저 지낼 곳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안하셔도 되요!

남자

(고개를 저으며) 아니. 아니야, 태형씨.
이건 내가 태형씨에게 주는게 아니라 태형씨가 날 위해 받아 주는거야.
태형씨가 나에게 자기의 과거를 털어 놓는 순간, 난 깨달았어.
하늘이 나에게 여자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 대신, 태형씨를 보내 준거라는 걸.
태형씨, 나는 태형씨에게 남자 그 이상이 되고 싶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순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그런...안될까?

태형이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 곤란, 감동, 슬픔이 뒤섞여 있다.
남자가 태형의 손을 잡더니 무릎을 꿇는다. 태형이 놀라 같이 무릎을 꿇는다.

남자

(간절) 태형씨,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죽고 나면 그 재산 다 나 사람 취급도 안하던 년, 놈들이 핏줄이랍시고 전부 가져갈 텐데...
나, 태형씨한테 이런 거라도 해주고 여기서만큼은 태형씨랑 좋은 시간,
남들 눈치 안보고 맘껏 누리고 싶어...내 부탁 들어주면 안될까?

고개를 들어 태형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태형도 덩달아 눈물이 차오른다. 태형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남자

(태형을 껴안으며) 고마워! 고마워. 태형씨!

남자가 태형의 얼굴을 양손으로 쥐고 볼에 뽀뽀를 한 뒤 일어나 선반에서 양주를 꺼낸다.
대길이 태형의 오피스텔에 왔을 때 태형이 내온 것과 똑같은 양주를 똑같은 컵에 따라 태형에게 권한다.

남자

(태형에게 잔을 내밀며) 자! 태형씨가 나를 받아준 뜻 깊은 오늘을 기념하며!

잔을 부딪힌 후 술에 입술을 적신 태형이 눈을 크게 뜨고 감탄하며 잔을 비운다.
남자가 술잔에 든 술을 빙글빙글 돌리며 태형을 응시한다.

#28. 대길의 집 거실. 밤.

넓고 고급스러운 거실의 소파에 앉은 서령이 쿠션을 안고 불안한 듯 몸을 앞뒤로 까딱까딱하고 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태형의 오피스텔에서와 같은 복장의 대길이 들어온다.
대길이 거실의 앉아 있는 서령을 보고 깜짝 놀란다.

대길

여보!...안 자고 있었네?

서령

(다정하게) 응, 여보 기다렸지. 근데 왜 그러고 와? 스케줄 갔다 온거 아니었어?

대길

(당황하며) 어...어! 저기 성실장이 급하게 가볼 데가 있다 그래서 조금 멀리서 내렸어. 걸어오는 길에 또 누가 알아보면 안되니까, 어! 그래서 그런거야.

서령

아 그래...여보 여기 잠깐 앉아볼래?

서령이 소파를 손으로 두드린다.

대길

(불안) 어? 어...지금? 조금 피곤한데...

어 저기 그럼 내가 저 화장실만 좀 갔다가 와서 얘기하면 안될까?

걸어 왔더니 땀도 나고 오줌도 마렵고 그렇네~ 오줌 싸고 세수만 하고 금방 나올게.

서령이 서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자 대길이 후다닥 화장실로 들어간다.

#29. 대길의 집 화장실. 밤.

대길이 조심히 컵에 물을 받아 변기에 쪼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낸 뒤 변기 물을 내린다.

세면대에 물을 세게 틀어 놓고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를 벗어 선반 위에 놓는 대길.

거울에 비친 대길의 눈이 발갱게 퉁퉁 부어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감정이 폭발쳐 오르는지 울먹거리는 대길.

거칠게 세수를 하고 호흡을 가다듬더니 수건으로 박박 얼굴을 문지른다.

#30. 대길의 집 거실. 밤.

화장실 문을 열고 수건을 목에 걸친 대길이 과장되게 여유로운 걸음으로 소파에 와 앉는다.

대길이 수건 말아 귀를 파는 시늉을 한다.

대길

늦은 시간까지 안자고, 무슨 할말 있어?

서령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봉투를 대길 쪽으로 내민다.

대길

(작게 혼잣말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며) 이게 뭐야? 어디 병원이라도 다녀왔어?

서령

(놀라며) 어떻게 알았어? 누구한테 들은거야?

대길

(더 놀라며) 어? 아니? 아니야 그냥 넘겨 집어 본거야! 자기 왜? 어디 아퍼?

서령

(안도하며) 아냐 봐봐.

대길

이게 뭐야...성부병원 정신과...SSRI...항우울제...우울? 여보 우울증이었어? 나 때문이야?
내가 그런거야? 내가...울먹...여보를...미안해 여보...

대길이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울려고 하자 서령이 손사래를 친다.

서령

(당황) 아니아니 그런거 아니고!...그 동안 사실 말은 못했지만...내가...불감증이었어. 여보!
말 못해서 미안해...속이려고 그런건 아닌데! 나는 정말 좋은데, 여보랑 하는게 너무 좋은데...
그게...내 거기에서 느낌이 잘...아무튼 진작에 말했어야 되는데, 말 못했어! 미안해!

서령이 손을 모으고 짹짹 비는 모양을 취한다. 대길이 당황하여 눈물이 쭉 들어간다.

대길

(어색한 말투로) 어...어? 뭐? 그럼 지금까지 그게 다 연기였던거야?
여보 그럼 나랑 하면서 그 오....오르가즘 느꼈다는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서령

(더 빨리 비비며) 미안...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서 알아보느라고...

미리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봉투 안에서 약봉지를 내보이며) 근데 이제 이 약 먹으면 괜찮아진대! 진짜 느낄 수 있대!

여보 그 동안 말 못해서 진짜 미안해...

대길이 눈물을 터트리며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영영 오열하기 시작한다.

서령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숙인 대길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애를 쓴다.

서령

(울먹이며) 여보...미안해 여태 속인거 너무너무 미안해...

근데 나 정말 여보랑 하는거 싫지 않았어.

너무너무 좋았어...울지마~ 여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대길이 자신을 달래려 애쓰는 서령을 뿌리치며 벌떡 일어나 소리친다.

대길

(울부짖는) 어떻게 지금까지 감쪽 같이 나를 속이고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이제 너를 어떻게 믿고 같이 살아?

그런 거까지 속이는 여자를 어떻게 믿고 같이 사냐고!

소리 친 대길이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나간다. 서령이 급하게 쫓아나간다.

#31. 대길의 집 앞. 밤.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나온 대길이 골목을 따라 뛰어간다.
따라 나온 서령이 자신의 옷과 신발을 살피더니 더 이상 쫓지 못하고 발만 동동 거린다.
서령이 후다닥 집으로 들어간다.

#32. 도로가. 밤.

대길이 들고 나온 수건을 흔들며 택시를 잡아탄다.

#33. 택시 안. 밤.

뒷자석에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고 있는 대길.
룸미러를 통해 택시기사가 대길의 얼굴을 힐끔힐끔 훑쳐본다.
대길의 옆에 놓인 핸드폰에서 ♡마누라♡라는 이름이 뜬다.
대길이 핸드폰을 힘껏 움켜쥐고 손을 바들바들 떤다.

대길

(갑자기 폭발) 씨발!!! 아아아악!! 이 씨발!!

대길이 욕지거리를 뱉고 엉엉 소리내어 운다.
훑쳐보던 기사가 기절초풍하더니 바짝 쫓아 핸들을 고쳐 잡고 시선을 앞에 고정한다.

대길

(흐느끼며) 미안해...흐흑...서령야...내가 미안해...흑흑 미안해...엉엉...여보...미안해...

#34. 태형의 오피스텔 안. 밤.

불꺼진 오피스텔 안. 커튼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 희미하게 방을 밝히고 있다.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나고 아무도 없는 방으로 대길이 들어온다.
대길이 아무렇게나 수건을 던져 두고 선반으로 가 양주를 꺼내 컵에 가득 따른다.
벌컥벌컥 마시더니 크헭! 하고 괴로운 소리를 낸 뒤,
다시 또 한잔을 따라 반쯤 마시다가 우엑!하고 헛구역질을 한다.
남은 반잔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털썩하고 의자에 앉는다.
말 없이 컵을 응시하는 대길의 뺨으로 눈물이 흐른다.

#35. 태형의 오피스텔 안. 낮.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방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34.와 같은 자세로 앉은 대길의 눈은 여전히 잔을 향하고 있고 뺨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하다.
밤에는 없던 양주병이 텅 빈 채로 컵 옆에 놓여있다.
대길이 입이 마른듯 짹짹거리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일어나더니 힘없는 걸음걸이로 오피스텔을 나간다.

#36. 대길의 집 거실. 낮.

서령이 거실 소파에서 쿠션을 안고 즐고 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달히는 소리가 나자 서령이 졸린 눈을 뚱그랗게 뜨고 일어나 현관문 쪽을 향해 선다.
대길이 들어와 서령을 쳐다보고는 말없이 침실로 들어간다.

서령

(대길의 뒤통수에 대고 소심하게) 여보...

잠시 뒤 캐리어를 끌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대길이 침실에서 나온다.

서령

(깜짝 놀라며) 여보? 여보! 그게 뭐야? 어디 갈려구?

대길

(단호하게)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하자.

서령이 놀라 대길에게 다가오려 하자.

대길

(소리치며) 다가오지마! 나 당신이랑 가까이 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거기서 들어.
당신 나한테 너무 미안해 할거 없어. 나 사실 여자 있어.

서령

(놀라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여자라니?

대길

(서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왜? 당신만 좋은 척 하는 줄 알았어? 착각 하지마!
나도 당신이랑 하는 거, 마냥 좋았던 거 아냐.
국민개그맨과 여배우, 잉꼬부부 타이틀 지키려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던 거야!
혹시라도 당신이 어디 가서, 내가 밖에서만 그렇고 집에서는 어찌고 떠들고 다닐까봐.
이제 서로 아닌 거 다 안 마당에 뭐 하러 같이 살겠어. 내가 나갈게.

서령

(기가 막혀하며) 아니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녀?
당신 지금 나 벌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렇지?
당신이 나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말을 왜 하는거야?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딴 여자는 또 무슨 소리고?
여보, 내가 설명 했잖아~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좋아지는 거라고!

대길

(서령을 외면하며) 믿고 안 믿고는 당신 마음대로 해.
난 지금 나가서 앞으로 그 여자랑 살거야.
이혼서류 준비 되는대로 연락할 테니까,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연락하지도 마.
소속사 통해서 언론에 뿌리든 SNS에 올리든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고,
이 집이든 위약금이든 당신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려.

단호하게 돌아서는 대길의 모습에 너무 놀라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서령.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그제야 쫓아 나간다.

#37. 대길의 집 앞. 낮.

미리 준비 되어 있던 택시에 캐리어를 실은 대길이 캐리어를 닫고 뒷자석에 몸을 신는다.
서령이 대문을 열고 나오자 택시가 부릉하고 출발한다.
떠나는 택시를 향해 서령이 소리친다.

서령

여보!! 야!! 마대길!! 마대길!!

#38. 택시 안. 낮.

뒷자석에 앉은 대길이 자신을 부르는 서령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감추려고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쓰는 대길.

#39. 태형의 오피스텔. 낮.

커튼이 걷힌 창을 통해 햇빛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다.
대길이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의자에 앉아있다.
테이블 위 전화기의 진동이 울리며 성실장이라는 이름이 뜬다.

대길

(심드렁하게) 여보세요.

종태

(다급한 목소리) 형님! 지금 어디세요? 스케줄 가져야 되는데, 형수님도 모르신다고 하고~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일단 저희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위치 좀 불러주세요.
현장엔 좀 늦는다고 얘기해둘게요.

대길

어 그래, 종태야.

종태

네 형님! 듣고 있어요. 어디시라고요?

대길

(울음을 참으며) 종태야...내가 당분간 일을 못할 거 같애...
사무실에 얘기해서 내 스케줄 좀 정리해주고...훈기랑 너, 어디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라.
휴가비는 내가 넉넉하게 챙겨줄테니까 걱정말고.
내가 여기 상황 정리되면 다 설명해줄테니까...그렇게 알고 부탁 좀 하자.
성실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럼 끊습니다.

종태

(놀라며) 네? 형님, 지금 그게 무슨...아 형님! 형님? 대길이형! 대길이형!

다급한 종태의 외침을 외면하고 통화 종료를 누른 뒤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하는 대길.
그때 푹푹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대길이 일어나 문을 열어주면 말쑥한 정장차림의 변호사가 들어온다.

대길

(의자를 권하며) 이런 곳으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진변호사님, 사무실에는 말씀 안하셨죠?

변호사

(자리에 앉으며) 네. 말씀하신대로 아무데도 알리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그 부탁하신 서류가 말입니다. 혹시...

변호사의 얘기 중에 대길이 기침을 하며 싱크대로 뛰어간다.

몇 차례 기침을 한 대길이 수돗물로 입을 행군 뒤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는다.

대길

죄송합니다. 이거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변호사

(대길의 옷을 훑어보며) 아닙니다. 아무래도 더 따뜻하게 입으시는게 나을 것 같군요.

아무튼 그 부탁하신 서류가 이혼 서류...맞나요?

그 어떤 분을 제가 변호해 드려야 되는건지...?

대길 접니다, 진변호사님. 제가 양서령씨랑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언론에 알려셔도 상관 없습니다.

변호사

(놀라며) 네? 대표님이요? 아니, 대표님.

두 분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대길

(씹쓸하게 웃으며) 그렇게 됐습니다.

속사정이야 저희 두 사람의 문제니까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쪽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조건이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속상한 표정으로) 그런 조건이라면야, 오래 걸릴 것도 없습니다만...

저, 대표님...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대길이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짓는다.

변호사

(고개를 숙이며) 하...죄송합니다. 순간 팬의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주제 넘게... 알겠습니다. 준비 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일어나서 나가는 변호사를 대길이 문 앞까지 가 인사한다.
마스크를 벗고 침대로 쓰러진 대길이 그대로 잠이 든다.

#40. 대학로 소극장. 낮

과거회상.

무대 위에서 감독으로 보이는 남자가 젊은 태형과 서령을 세워놓고 혼내고 있다.
태형과 서령이 풀 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감독의 꾸지람을 듣고 있다.
객석 사이사이를 빗자루로 쓸고 있는 대길이 힐끔힐끔 서령을 훑쳐본다.

#41. 소극장 앞 대학로 길가. 밤.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학로 극장가 앞.
극장 입구에서부터 여자 팬들에게 둘러싸인 태형.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던 대길이 돌아서 골목을 걸어간다.
극장 뒷문을 통해 나온 서령이 주위를 두리번 거리다 대길을 향해 뛰어온다.
서령이 교복을 입고 있다.

서령

(해맑게) 오빠! 오빠!

대길

(놀라며) 네, 네?

서령

대길 오빠 맞죠? 태형오빠 친구!

대길

(수줍어하며) 네, 네...안녕하세요.

서령

(푹하고 웃으며) 하루 종일 같은 극장 안에 있었는데 무슨 안녕하세요예요~!
되게 웃기네~ ㅋㅋ. 오빠, 오빠! 근데 어디 살아요?

대길

(소심하게) 저...저요? 저...동대문이요...

서령

아 그래요? 태형오빠랑 같이 살아요?

대길

네? 네...

서령

아 뭘! 물어볼때마다 네?네? 이려고 놀래요~! 아무튼 잘 됐다!
저희 집 동대문 가는 길에 있는데, 근처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안되요?
(시무룩) 엄마가 늦은 시간에 혼자 걸어서 다니지 말고 택시비 줬는데~
아까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먹는 바램에~ 다른 오빠들은 다 술 마시러 간다 그러구~
(애교) 오늘만 부탁드리며 안될까요?

해맑게 웃는 서령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는 대길.
퍼뜩 정신이 든 듯 앞으로 고개를 돌리며 수줍게 끄덕인다.

서령

잘됐다! 사실 혼자 가기 무서웠거든요.
이 시간에 술 취한 대학생들이 너무 많아서...아! 그리고 보니까 오빠는 술 안드세요?
다들 가는 분위기던데?

대길

아...저요? 저는 집에 불일이 좀 있어서...

#42. 서령의 집 앞. 밤.

어둑어둑한 골목길에 두 사람이 걸어온다.
서령이 조잘조잘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대길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
단독주택인 서령의 집 앞에 선 두 사람.

서령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여기까지 안데려다 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꾸벅)
덕분에 잘 왔어요. 그럼~
(손을 흔들며 초인종을 누른다. 벨소리가 끊기고) 엄마 나아~

띠~하는 소리가 나고 서령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물끄러미 지켜보던 대길이 피식하고 웃음을 터트린다.
기분이 좋은 듯 몸을 좌우로 까딱까딱하며 천천히 걸다가 퍼뜩 정신이 든 듯 손목시계를 바라본다.
아이씨!하며 급하게 왔던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다.

#43. 목욕탕 안. 밤.

팬티 차림의 대길이 기다란 솔을 들고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다.
삭삭 소리가 고요한 목욕탕 안을 울린다.
시간경과.
탕 안에 몸을 목까지 담근 대길이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흐흐 하고 혼자 실없이 웃는다.
스르르 탕의 수면 아래로 대길이 사라졌다가 아 뜨거! 하면서 튀어 나온다.

#44. 목욕탕 탈의실 안. 밤.

찜질방 옷을 입은 대길이 탈의실 벤치에 앉아 벽에 달린 TV를 보고 있다.
코미디 프로를 보며 즐겁게 웃고는 있는 대길의 뒤로 보관함 문에 젖은 채 널려있는 옷가지들이 보인다.

#45. 대형의 오피스텔. 밤.

다시 현재.

오피스텔 창문을 통해 주위 건물의 간판 불빛들이 대길의 얼굴 위로 쏟아진다.

대길이 서서히 눈을 뜬다.

고개를 들고 여기저기 손을 뻗으며 핸드폰을 찾는다.

핸드폰을 잡은 대길이 시간을 확인한다.

밤 11시 30분.

대길이 핸드폰의 비행모드를 풀자 한참 동안 진동이 울린다.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 대길이 다시 화면을 켜본다.

문자 57통이라는 글씨가 보인다.

핸드폰을 열어 터치하던 대길이 서령의 문자에서 손이 멈춘다.

터치하여 문자를 연다. 문자 내용 보이면서 서령의 내레이션이 나온다.

서령

진변호사님 연락 받았어. 그래 하자 이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건 못 믿겠어. 보여줘.

만나서 보여주면 깨끗이 도장찍어줄게. 이거 보는 대로 시간 장소 정해서 연락 줘.

그때까진 당신이 좋든 싫든 우린 부부야.

대길이 핸드폰을 든 손을 떨구며 천장을 향해 깊은 한숨을 쉰다.

#46. 고급 레스토랑 앞 골목길. 밤.

운동복 차림에 야구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로 완전무장한 대길이 핸드폰을 들고 초조한 듯 서있다.

핸드폰 화면에는 소개팅 어플의 채팅창이 켜져있다.

방제가 [애인대행 구함. 과묵하신 여성분. 키 170이상, 이목구비 좋습니다. 사례비 후하게 드림]이다.

채팅 내용에 여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약소 장소와 시간, 일당 200만원을 알려준 부분이 보인다.

대길

(두리번 거리며) 아 씨발 왜 안와...이거 안오는거 아냐? 아씨~ 200만원은 너무 오바였나?

하룻밤치고는 과한 금액이긴 하지...아! 진짜 돌겠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씨~

대길이 모자 안으로 손을 넣어 머리를 긁고 있는데,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이안이 또각또각 걸어온다.

입이 떡!하고 벌어지며 과장되게 손을 흔드는 대길.

이안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서 대길 앞에 선다.

대길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이안.

대길

(핸드폰 화면과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유이안씨? 본인 맞아요?

이안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대길

오케이! 늦었으니까 일단 들어갑시다.
(단호하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한 마디도 하지 말고,
내 옆에 앉아서 음식만 먹고 나와서 각자 갈 길 가면 됩니다.
보수는 식당 나오자마자 바로 입금, 아시겠죠?

이안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길을 따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간다.

#47. 고급 레스토랑 안. 밤.

고급 진 레스토랑의 내부.

대길과 이안이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서령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온다.

대길이 이안의 의자를 빼서 매너 있게 권한다.

이안이 다소곳이 앉는다. 대길이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 앉는다.

대길

(작게 화난 목소리로) 야! 조용한데서 보자니까 왜 고집을 피워!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어쩔려고!

서령

(뻔뻔하게) 알지 나두~ 오빠랑 자주 왔었잖나~?
오빠 처음 대상 받았을 때도 여기 왔었잖아~ 기억 안나?

대길

(여전히 작게) 알아! 나도 안다고!
(한숨) 서령아, 너 이렇다고 나 너한테 다시 안 돌아가!
괜히 힘 빼지 말고 우리 빨리 도장만 찍고 나가자.

서령

알어~ 나도. 마지막인데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온거야.
(이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보다, 소개 안시켜줘?

대길

(까먹고 있었던 듯) 아~ 그래! 미안미안~
(이안에게) 자기야 알지? 여기는 이제 곧 내 전처가 될 배우 한서령.
(서령에게) 여기는 요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유...인나씨라고 해!
보통은 내가 허니라고 부르지. (느끼하게) 그렇지 허니?

이안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까딱한다.

입만 웃고 있는 서령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진다.

#48. 고급 레스토랑 앞. 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타려는 서령에게 대길이가 황급히 얘기한다.

대길

진번호사님한테 얘기해둘 테니까, 너 다음 주~ 수요일!
그래 너 수요일에 스케줄 없지? 수요일에 법원에서 보자.

서령

(냉랭하게) 알았어.

서령이 문을 활 닫자, 택시가 출발한다.
멀어지는 택시를 바라보던 대길이가 이안 쪽으로 돌아선다.

대길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한 마디도 안하고 잘 드시더라고요.
계좌번호 주시죠. 지금 바로 짜드리겠습니다.

이안이 핸드폰을 터치하더니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화면을 내민다.

대길

보자...기업은행...200만원...어 받는 분이 유형근? 유형근 맞아요? 아버님 성함이신가?

이안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격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대길

(터프하게 터치하며) 송금! 됐습니다.
(이안의 핸드폰에서 땡!하는 소리가 난다.) 금액 확인 해보시고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이안에게 가볍게 인사를 마친 대길이가 뒤를 돌아 골목을 따라 걸어간다.

대길

(울먹이며 혼잣말) 됐어. 잘했어. 마대길. 잘한거야...흠쩍...잘한거라고 새끼야...잘한거야.
마대길! 울지마! 사내자식이 뭐 이런거 가지고...흠쩍!

내려가는 대길의 뒤에 이안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린다.
대길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본다.

대길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아니...왜? 흠쩍! 금액이 안맞아요?

이안이 고개를 가볍게 젖더니 바로 옆에 조그만 선술집을 가리키며 소주잔을 들이키는 마음을 한다.

대길

(혼잣말) 뭐야? 말을 못하는거야?
(마음을 하며) 한잔 하자구요? 나랑? 그쪽이랑?

이안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가락으로 대길, 이안의 핸드폰, 선술집,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가리킨다.
이안이 가르킨 곳들을 번갈아 보던 대길은 이해했다는 듯 아~하는 소리를 낸다.

대길
(손가락질을 따라하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줬으니 그쪽이 나한테 술을 산다고?

이안이 미소지으며 격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대길
(잠시 고민 후) 그래요 그럼시다.
안 그래도 한잔 하고 싶었는데, 대신 안주랑 술은 각자 따로 먹읍시다. 오케이?

말을 마친 대길이 선술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이안이 뒤를 따른다.

#49. 태형의 오피스텔 안.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오피스텔 안.
문 밖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려온다. 대길의 목소리이다.

대길
(술에 잔뜩 취해 큰소리로) 서령아~~서령아!! 미안해!
서령아...서령아...내가 정말 미안하다...나 같은 놈 만나서...서령아~!!

이웃집 목소리
거 술취했으면 조용히 들어가 잡시다!

대길
(여전히 큰 소리로)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런데 이건 누구야 야 너 누구야 이거 놔! 내 몸에 손대지마!

도어락의 번호키가 뜨문 뜨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고 이안의 부축을 받으며 대길이 들어온다.
이안이 손을 더듬거리며 버튼을 찾아 불을 켜고 숨을 헐떡거리며 대길을 침대로 끌고가 던져 놓는다.
대길이 억! 소리를 내며 침대에 나동그라진다.
술에 취해 괴로워 하는 소리를 내며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벗어 던지는 대길.
야구점퍼의 똑딱단추를 터프하게 두둑 벗긴 대길이 답답한 듯 티셔츠의 목을 잡아 당긴다.
이안이 대길의 티셔츠를 벗긴다.
대길이 발로 운동화를 벗어서 침대 아래에 벗어놓자 이안이 신발을 주워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는다.
이안이 방안을 두리번 거리다 냉장고를 찾아 생수를 꺼내 병째로 별컹별컹 마시고 다시 집어 넣는다.
대길을 물끄러미 보던 이안이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대길이 끄응~하고 앓는 소리를 낸다.
이안이 돌아보자 대길이 바지의 끈을 풀지 않고 벗으려고 용을 쓰고 있다.
이안이 아이참!하고 침대로 와 익숙한 듯 대기르이 바지끈을 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데,
벗으려던 대길의 손이 갑자기 바지를 움켜쥐는다.

천천히 눈을 떠서 자신의 하체를 쳐다보던 대길의 이안과 눈이 마주친다.
대길의 눈이 커지며 기겁을 하며 몸부림을 친다.

대길

(정신이 뻘쩍) 와아악!!...다다다다당신...당신 아까 그 레스토랑...
당신...당신이 여기 왜 있어...당신 지금 뭐뭐뭐...할라 그랬어? 영?!
신...신고 신고한다? 내 전화기...내 전화기가 어디갔냐...
(휘청하며) 어우...어디...가...내 전화기, 어쨌어 당신!
방금...내 꼬추에 지금 무슨 짓 할라 그랬어? 영!?

이안

(후~하고 한숨을 쉬더니) 씨발, 니 꼬추가 뭐?

대길

(화들짝 놀라며) 어! 뭐야! 말할 줄 아네? 말 잘하네? 아니 그럼 여태 말 안하고...
여기 와서 왜 내 바지를 벗기고...당신 뭐야! 당신, 변태야?! 그래서 나한테 술 멕이고 영?!

이안

지랄~ 술은 지 혼자 다 쳐먹고 질질짜더니!
아무리 따로 먹기로 해도 어떻게 짠 한번을 안하고... 뭘 술 먹는 하마야?
아주 목을 열고 들이 부으시더만?
씨발 팔라 된 놈 연예인이라고 집까지 데려다 줬더니 어디서 고맙단 소리는 못할 망정!
쫓 갈아서 진짜...

대길

(기가 죽어서) 아...그게...그거는 일단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꾸벅)
근데! 방금 그쪽이 제 바지를 벗기고 계셨지 않습니까요?
(아래를 가르키며) 얼굴을 여기 막 이렇게 가까이 들이대시고...

이안

(짜증 폭발) 아! 씨발! 진짜 별 웃긴 꼴 다 보겠네?
아저씨 국민개그맨이라더니 진짜 웃긴다~ 정말!
저기요, 아저씨! 그거 저도 다 있는거거든요?

대길

(당황) 네...네?

놀라는 대길에게 이안이 성큼성큼 다가와 대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중요부위에 갖다댄다.

대길

(깜짝) 우와! 왜 이래서요?! 이거 물컹한 거! (오잉?)
(놀라서 한참을 가만 있다가 천천히 이안을 쳐다보며) 물컹?
(황급히 손을 빼며) 으아아아!! 물컹?!

대길이 침대에서 튕겨지듯 내려가 연신 물컹!이란 단어를 연발하며 난리를 친다.

부안스럽게 손을 흔들면서 방안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대길.
지켜보던 이안이 대길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뺨을 후려갈기자 대길이 기절하며 침대 위에 쓰러진다.

#50. 태형의 오피스텔 안. 아침.

아침 새소리가 들려오며 아침 햇살이 바닥에 누운 대길의 얼굴에 쏟아진다.
알몸에 팬티만 걸친 대길이 추운 듯 팔을 가랑이 사이에 넣고 모로 누워있다.
추위에 몸서리를 치더니 이내 가늘게 눈을 뜬다.

대길

(인상을 찡그리며) 어...영? 읊!!

손으로 입을 막은 대길이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다.
화장실을 불이 켜고 들어간 대길의 토악질 소리와 변기에 토사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난다.
웁!하고 물을 내린 대길이 휴지로 입을 닦고 물이 내려가는 변기에 던져 넣는다.
뒤에서 태형의 가운을 걸친 이안이 걸어 들어오더니 대길을 밀치고 가운을 열어 서서 소변을 본다.
쪼르르 소변 떨어지는 소리.
대길이 변기 옆 바닥에 쓰러져 이안의 거기를 보고는 기겁한다.

이안

(잠이 덜 깬 목소리) 아저씨...아저씨꺼 보세요~ 아저씨꺼...

대길이 놀란 표정 그대로 시선을 바닥으로 내린다.

#51. 국밥집 안. 낮

허름한 국밥집에 텅빈 가게에 이안과 대길 뿐.
어제와 같은 복장의 이안이 쌍얼에 어제 대길이 꺾던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소주와 국밥을 먹고 있다.
대길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마주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이안

(한껏 여성스런 말투로) 이모~ 여기 소주 한병만 더 주세요~

(대길을 보며) 오빠는 안먹어? 하나 더 시켜서 같이 한잔해~ 해장술 해야지?

이안이 술병과 잔을 내밀자 대길이 욱!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가로 젓는다.

#52. 태형의 오피스텔 복도. 낮.

대길과 그 뒤를 따라 이안이 복도를 걸어온다.

대길

(짜증스런 말투로) 아니~ 그건 안 돌려줘도 되니까!

그냥 가라니깐~ 그거 별로 안 비싼거야~

이안

(역시 짜증섞인 말투) 아이씨! 이 얼굴을 해가지고 어떻게 집까지 그냥 가요!
몇 개만 얼른 찍어바르고 간다니깐?
누가 보면 그 쪽 좋아서 따라다니는 줄 알겠네! 어우 씨발 진짜!

서로 짜증스런 표정으로 복도를 걷던 두 사람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멈춰선다.
태형의 오피스텔 문이 열려 있고 문 앞에는 캐주얼한 복장의 중개인이 서있다.
안에서는 젊은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막 안에서 나오고 있다.

대길

(경계하며) 저...누구시죠? 누구신데 남의 오피스텔에 함부로...

중개인

아 여기 사시는 분들이신가요? (서류를 뒤적거리며) 그럼 장태형씨?

대길

(당황하며) 네? 아뇨 저...제가 장태형은 아닌데 저...

중개인과 부부과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오히려 대길을 의심스러워 한다.

중개인

(명함을 내밀며) 저희는 여기가 매물로 나와서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만,
장태형씨 본인이 아니시면 그럼 누구신지...?

남성과 부부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진 대길의 얼굴을 유심히 훑어보려 하자 이안이 앞을 막아선다.

이안

아...저희는 그 태형오빠 친구들이에요 친구!
오빠가 여기 팔리기 전까지 지내라고 해서 잠깐 신세지고 있었어요~
(대길을 돌아보며 윙크하는) 그지 오빠?

대길이 이안 등 뒤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끄덕끄덕 한다.

이안

태형오빠가 안그래도 부동산에서 오실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오늘이었구나! 어떻게 방은 다 보셨어요?

중개인

(여전히 미심쩍은 듯) 네 뭐...상태는 양호하네요...인테리어야 뭐 개인취향이니까...
아무튼 저희는 내려가서 좀 더 얘기해보고, 나머지는 집주인분께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부부를 향해 깍듯하게) 그럼 가지죠.

부부가 대길과 이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중개인을 따라 복도를 걸어간다.
세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이안이 대길의 손을 잡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간다.

#53. 태형의 오피스텔 안. 낮.

대길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다.
이안이 화장실 거울을 통해 대길을 살펴보며 자신의 화장을 고치고 있다.

이안

안 받아요? 냅다 팔고 털려고 했나보네~ 오빠한테 말도 안하고 너무했다~!

대길

(힘 없는 목소리로) 아냐...나도 어차피 말도 안하고 이려고 있는거라...뭐 할말 없지...
(한숨쉬며) 그나저나 이제...어디서 지내냐...법원만 다녀오면 외국이라도 나갈랬더니...

화장을 끝낸 이안이 화장품 케이스를 탁!하고 닫으며 대길을 향해 돌아본다.

이안

외국? 외국 어디?

대길 글썽 딱히 생각해둔 건 없는데...뭐 어디든 나 알아보는 사람만 없으면...

이안

그래요? 그럼 태국 어때요? 나 태국 갈 일 있는데~

대길

(발끈하며) 야! 이씨! 언제 봤다고 해외여행을 같이 가제!
그리고 내가 무슨 관광하러 가냐? 놀러가?

이안

아니면 아닌거지 왜 화를 내?! 그리고 나도 놀러가는거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일인데...씨발! 지낼 데 없으면 재워주고 비행기 값이나 내달라고 할랬더니...
아~ 됐어요! 나도.

화장품들을 짜증스럽게 가방에 집어넣은 이안이 성큼성큼 나가려고 한다.

대길

(다급하게) 아...저...저! 저기!

이안

(짜증스럽게) 아, 왜요 자꾸?!

대길

(소심하게) 그...방은! 방은 따로 쓸 수 있는거지?

#54. 이안의 빌라 건물 앞. 낮.

90년대 느낌의 빨간 벽돌로 된 낡은 빌라.
택시가 이안이 사는 빌라 건물 입구에 서면 대길과 이안이 내린다.

탁! 소리가 나며 트렁크가 열리면 대길이 캐리어를 꺼내고 트렁크를 닫는다.
택시가 스르륵 사라지고 이안이 빌라 계단을 올라가면 대길이 캐리어를 들고 끽끽거리며 따라 올라간다.

#55. 이안의 빌라 안. 낮.

90년대 느낌의 노란색 장판이 깔린 빌라. 방 3개, 주방, 욕실 구성의 17평 정도의 크기.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이안과 대길이 들어온다.
작은방 문이 열리면서 쏙뚝에 츄리닝 차림을 한 지안이 나온다.
츄리닝 가슴팍에는 태극마크, 등에는 KOREA가 새겨져있다.

지안

(소리지르며) 야 너 어제 집에!!!

(대길을 발견하고 불륜 줄어든다.) 왜...안들어 오고...누구?

대길이 지안에게 깽뚝하게 인사를 한다.
이안이 귀찮다는 듯이 지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문을 연다.

이안

어제 이 아저씨랑 같이 있었어~ 며칠만 여기서 지내실거고~

자! 서로 인사해! 여기는 내 동생 유지안~ 저 분은~

이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안이 대길의 복부에 리버블로를 꽂아 넣는다.
대길이 억! 소리를 내며 배를 잡고 쓰러진다.

이안

(경악하며 대길을 살핀다.) 야!! 이 미친년아! 왜 갑자기 사람을 패고 지랄이야!

지안

(경멸하는 표정으로 대길을 보며) 누굴 감히 집으로 데려와? 그리구 뭐?

같이 잤다고? 더러우니까 당장 나가 당장!!!

대길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어...!!!! 뭔가...오해가...좀 있는거 같은데...그런게 아니라...

저기 이안씨랑 나랑은...

(이안이 맞은 곳을 살펴보려하자) 아...건들지마...! 토 할 것 같애...

지안이 두 사람을 썰러보다 자기 방으로 획 들어가며 문을 광!하고 닫는다.
이안이 저게!하며 따라 들어가 문을 광!하고 닫는다.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오고 혼자 배를 움켜잡고 신음하던 대길이 고개를 들어 집안을 살핀다.

#56. 이안의 빌라 건물 앞. 밤.

건물 입구 계단에 대길이 츄리닝을 입고 쪼그려 앉아 있다.
핸드폰으로 자신의 기사를 찾아보는데 기사 제목이 [국민개그맨 잠적, 이혼 루머에 대한 증거?] 라고 뜬다.
착잡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대길의 뒤로 츄리닝을 입은 지안이 내려온다.

지안이 대길의 옆에 살짝 떨어져 앉으며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인다.
대길이 지안을 쳐다보자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대길에게 내민다.
대길이 머뭇머뭇하다 받아 물자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준다.
대길이 지안의 눈치를 보며 담배를 빨아들이다가 쿵쿵!쿵쿵! 기침을 하며 인상을 찌푸린다.

지안

(한심) 뭐예요, 담배 필줄 몰라요?
TV에서는 엄청 상남자 꼴처럼 굴더니 다 구라였구만!

대길

(인상을 쓰며) 쿵쿵! 아니...끊은지 오래 돼서 그래요!
오랜만에 필러니까...근데 운동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담배 퍼도 되나?
복싱은 그 폐활량이 좋아야 된단데?

지안

그래서 하루에 한 개비만 피잖아요~
그리고 뭐 이 정도가지고 누구한테 질 실력은 아니니까...
아무튼 아까는 미안했어요...괜찮아요?

지안이 대길의 배를 만져보려 손을 내밀자 대길이 기겁하고 멀어진다.
겁 먹은 자신을 뺨뺨해하며 대길이 말한다.

대길

아...하하! 괜찮아요! 남자가 이 정도 가지고 뭐!
주먹이 매섭긴 하더만요! 어릴 때부터 하셨나? 기본기가 아주 좋더라구요!
(복싱 흉내) 내가 또 잠깐 봐도 다 알지 그럼!! 하하하
(웃다가 갈비뼈를 잡고) 아!...하하...

지안

(웃다가 갑자기 심각해지며) 아빠가 복싱체육관 관장님이었어요...
덕분에 어릴때부터 맞고 다닌 적은 없었죠, 근데 오빠는 아니더라고요.
맨날 친구들한테 놀림 당하고 맞고 오고, 아빠는 그게 너무 싫으셨나봐요.
오빠가 친구들한테 맞고 온 날이면 아빠한테 더 혹독하게 훈련 받아야 했죠.
근데도 오빠는 누굴 때리고 화내는 걸 못했어요. 그냥 맞고 울기만 했죠. 바보같이...
그래서 제가...제가 대신 싸웠어요.
오빠가 질질 짜는 것도 짜증나고 저런 아빠한테 시달리는 꼬 보는 것도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지안이 고개를 들어 촉촉한 눈으로 대길을 보는데 대길이 두 손을 가랑이 사이에 끼고 졸고 있다.
지안이 어이없어 하며 벌떡 일어나 계단을 쿵쿵 올라간다.
졸던 대길이 깨서 지안을 쫓아 올라가는데 문이 쿵하고 닫히는 소리가 나고 철컹하고 잠기는 소리가 난다.

대길

(작은 목소리로) 지안씨...지안씨?
(똑똑) 저 아직 안들어갔는데요...지안씨~?

#57. 이안의 빌라 안. 낮.

대길이가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자신과 관련한 연예뉴스 유튜브를 보고 있다.
외출 준비를 마친 이안이 방문 앞에서 대길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안

오빠, 나 일 나가요~ 늦게 올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대길

(이안쪽으로 돌아보며) 영? 일? 무슨 일?... 뭐 좀 그런거야?

이안

(한심) 궁금하면 같이 가시던지?

대길

(고개를 다시 꺾 돌리고) 됐다~ 관심없다. 잘 다녀오고~

이안이 입을 삐죽거리며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형형색색의 선물박스를 가득 안은 택배기사가 계단을 올라온다.

이안

(문을 열어주며) 어머 뭐가 또 이렇게 많어~
아저씨 이안으로, 여기 좀 놔주세요 여기

택배기사가 집안으로 들어와 택배박스를 놓고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 나간다.

이안

(택배기사에게) 수고하셨어요~
대길 오빠! 이거 좀 도와줘요~

대길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박스들이 쌓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대길

(식겁) 아니! 나 여겼다고 누구한테 얘기했어?
어떻게 알고 벌써...이걸 언제 다... 야 너!!

이안

(혼잣말로) 저 오빠 뭐래는거니?...아!
오빠꺼 아니니까 오버하지 말고 이거 지안이 방에 좀 넣어놔줘요~ 나 빨리 가야되니까!

말을 마친 이안이 문 밖으로 사라진다.
남겨진 대길이가 조심스럽게 박스를 살펴본다.
받는 사람에게 유지안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58. 이안의 빌라 안. 밤.

어두운 방 안. 침대에 엎드려 자던 대길이 꿈뻑꿈뻑 눈을 뜬다.
손을 더듬어 핸드폰을 켜면 시간은 저녁 9시 15분이다.
하품을 크게 하고 기지개를 켜 대길이 이안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너 지금 어디냐?' 잠시 뒤 알림음이 나고 핸드폰을 본 대길이 이안의 방에 걸려있는 가발을 쳐다본다.

#59. 클럽 안. 밤.

자그마한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코미디 클럽.
테이블에 둘러 앉은 손님들로 채워진 클럽 안으로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한 대길이 들어온다.
클럽 뒤쪽 바에 앉은 대길이 맥주를 한병 주문하고 클럽을 둘러보고 있다.
그때 마침 무대 위로 이안이 올라와 마이크를 받아든다.

이안

안녕하세요~ 여자보다 예쁜 여자가 되고 싶은~ 아직은! 남자? 유이안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이안

고맙습니다. 어제는 제가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듣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네~하고 대답한다.

이안

좋습니다! 제가 어제 엄청 유명한 사람이랑 그 사람 와이프랑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맥주를 마시던 대길이 맥주를 뿜는다.
바텐더가 주는 티슈를 받아 다급하게 입을 닦는다.

이안

아니 이 사람이 글썄! 와이프랑 헤어지고 싶으니까 나보고 바람 핀 상대방인 척 해달라는거야~
(자신의 아래를 가리키며) 내가 어떤 상태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 웃음) 그래서 내가 또 미모가 좀 되니까! 입 꼭~ 다물고 여자친구인척 해줬더니~
와이프가 깨갱하고 이혼해준다고 하더라구?
(여자손님들만 어~~) 그래 좀 안됐긴 했더라.
암튼! 그리고 끝까지 잘 속이고 서로 빠이빠이 하는데 남자가~!
(우는 사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이려고 막! 이려고 걸어가는데 너무 안된거야~ 그래서 어떡해?
술이나 한잔 하면서 달래주려고 갔더니 혼자 깡소주를 존~나 들이 붓더니 팔라가 됐네?
(사람들 웃음) 그래서 버려두고 갈까 하다가 이 사람이 존~나 유명하다 그랬자나?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집에 데려다 줬지~
(역지로 끌고 가는 마임) 막~ 이려고 와서 침대까지 곱게 잘 눕혀 두고 그냥 나올려고 했어, 왜?
내 스타일 아니니까~(웃음)
근데 남자들 그거 알지? 술 먹으면 옷 다 벗는 애들 있자나~ (걸걸) 나도 그래 봐서 알고!

암튼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하나하나 벗는데 바지를 못 벗어서!
(지난 밤 대길의 흉내를 내며) 막 이려고 이려고 있는거야!
(사람들 웃음) 그래서 참! 내가 너~무 착해서 탈이지!
그걸 또 지나치질 못하고 친절하게 바지까지 벗겨주는데~
(눈을 톱그랴게 뜨고) 이 놈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나를 막~~ 꽃땀 취급을 하면서!
신고를 하니 마니 썩지랄발광을 하는거야 글썩!! (사람들 웃음)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나도 내꺼 있다~ 오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사람 손을 어떻게?
(자신의 손을 가랑이 사이로 가져가며) 이렇게 (사람들 박수치고 자지러지는)
이렇게 했더니 막 (지난 밤 대길의 흉내를 내며) 덜렁! 덜렁! 막 이러면서 혼자 썩썩을 하더라 말이지~!
(웃음소리가 더 커진다.) 그래서 내가 뺨을 냅다 후렸더니 (기절한 대길의 흉내를 내며) 이려고! 이려고! 쓰러져서 자더라니까? 웃기죠? 반응 좋네? ㅎㅎ!
다음에 또 만나면 더 재밌는 얘기 가지고 올게~ 그럼 안녕!

무대를 마치고 내려가는 이안에게 기립 박수를 치는 관객들과 환호하는 사람들.
인상을 잔뜩 쓴 대길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고 있다.

#60. 이안의 빌라 안. 낮.

침대 위에서 이불을 싸매고 누워있는 대길.
바닥에는 지안과 이안이 상을 펴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안
아저씨...진짜 안드세요?

이안
그래요 오빠! 화 풀고 좀 먹어~ 국민개그맨이란 사람이 겨우 그런거 가지고 빠지고 그래!!
(밥상에 앉으며) 당연히 에피소드로 써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 안해봤어?
아마추어처럼 왜 이래!?
(혼잣말) 그러게 왜 또 그 타이밍에 와가지고...

대길이 등 돌려 누운 채 시발시발 거린다.

이안
뭐라고? 오빠 지금 뭐했어?

딩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난다.

지안
누구세요?

말 없이 초인종이 다시 울린다. 딩동!딩동!딩동!

지안
(짜증내며) 누구시냐구요!!

초인종이 짜증스럽게 계속 울린다.

지안

(문을 확 열며) 아이 씨발! 누구야!

지안이 거칠게 문을 열자 그 앞에 선글라스를 낀 서령이 서 있다.

지안이 깜짝 놀라 그대로 얼어버린다.

서령이 지안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온다.

이안이 방에서 나와 서령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안

(놀람) 양...서..령씨? 어머니 세상에!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지안

(호들갑) 양서령? 그 양서령? 우와 진짜 팬이에요!!

대길이 이불을 두른 채로 방에서 급하게 나오다 이불에 걸려 넘어진다.

이불을 걷어내며 다급하게 서령을 막아선다.

대길

여보? 아니아니 서령아...여...여긴 어떻게? 너 오늘 촬영이지 않아?

핑크 내며 온거야? 나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서령이 핸드폰을 터치하자 유튜브에서 지난 밤 공연한 이안의 영상이 나온다.

서령

오빠 어딴나 물어보러 온건데, 잘 됐네. 어떻게 된거야? 이 여자...

(이안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이 사람이 말한게 다 사실이야?

나한테 거짓말 한거야? 왜? 왜 그런건데? 그렇게 나랑 이혼이 하고 싶었니?

오빠 아니, 마대길씨 말해봐! 뭐야? 도대체 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지안

(방으로 안내하며) 저... 일단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는게?

서령

(무시하며) 이런 식이면 나 이혼 못해줘.

집에서 기다릴테니까, 오빠가 와서 다 해명해.

해명하기 전까진 우리 이혼 얘기 없던거야. 알았어?

(지안을 향해) 동생분도 누나, 아니 형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말렸어야죠.

집까지 데려와 같이 살면서 개그소재로 쓰고...정말 너무하네요.

서령이 제 할말만 하고 다시 선글라스 끼고 휙 나가버린다.

지안이 다급하게 현관문 밖으로 소리친다.

지안

언니! 저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남자 아니에요! 언니~
(대길에게) 뭐해요! 쫓아가요! 가서 저 여자라고 해줘요! 빨리!

썩썩한 표정으로 있던 대길이 다급하게 쫓아나간다.

#61. 이안의 빌라 건물 앞. 낮.

대길이 계단을 뛰어 내려오면 서령이 차를 몰고 가버린다.
대길이 멀어지는 서령의 차의 뒤를 찡그린 얼굴로 지켜본다.
퍼뜩 생각이 난 듯 주변을 살피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시 뛰어 들어간다.

#62. 대길의 집 앞. 밤.

대길의 집 문 앞에 택시가 와 선다.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한 대길이 조수석에서 내리고 뒷좌석에서 이안과 지안이 내린다.
대길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뒤를 돌아본다.

대길

(간절) 지안씨, 미안한데 지안씨는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안될까?
지안씨까지 오는건 도움이 안될꺼 같은데... 응?

지안

(버럭) 아니! 제가 뭐 아저씨 집 구경하러 온 줄 아세요?
서령 언니...따지고 보면 저도 공범이니까 사과드리려고 그런거죠!!

대길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한번 쉰 뒤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다.
뒤를 이어 이안과 지안이 들어간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다.

#63. 대길의 집 거실. 밤.

번호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대길과 지안, 이안이 들어오면, 안방 문을 열고 서령이 나타난다.
서령이 잠깐 놀랐다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길을 바라본다.
대길은 서령과 눈을 맞춘 채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뒤의 지안과 이안은 고개를 좌우로 두리번 거린다.

서령

뭐야? 그 형제들까지 데리고 와서 뭐 어찌려고?
협박이라도 하려고 온거야? 순순히 이혼하라고?

지안

(울상) 언니! 전 여자에요!
(이안을 가리키며) 이 인간이랑 다르다고요!

이안

(간절) 언니! 저도 조만간이에요! 언니 이혼하면 이 오빠랑 같이 태국갈꺼라고요!

대길이 놀라며 이안을 쳐다보고, 서령이 분노로 눈을 질끈 감는다.

서령

(부들부들)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닌거 아니었어?...나랑 이혼하고 팔자 좋게 해외여행을 가시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대길!?

대길이 천천히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를 벗는다.
착잡한 표정이 드러난다.

대길

(울적) 서령아, 꼭 알아야겠니? 이유가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헤어지면 남남인데, 그걸 꼭 알아야 되겠니?

서령

오빠...내가 오빠를 몰라? 우리가 극단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알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아는 마대길이란 사람은 절대! 절대로 나한테 이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혼하자고 할 사람이 아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그게 뭔지 난 알아야겠어.
오빠랑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알아야겠다고!

대길

(진지하게) 알았어...그래 그럼 말해줘야지...그래.
이안씨, 지안씨 두 분도 여기 좀 앉아보세요. 두 분도 아셔야 될게 있어요.

집구경에 정신 없던 지안과 이안이 응? 우리도?하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는다.
세 사람이 나란히 소파에 앉자, 대길이 그들을 마주보고 무릎을 꿇는다.

지안

(놀람)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한테까지 안 그러셔도 되요~
언니 우리 그냥 비켜드리자. 가자~ 빨리!

대길

아닙니다. 제가 두 분께도 말씀드리지 못한게 있어요.
먼저 서령아, 그래! 내가 이안씨한테 부탁해서 너 속이고 이혼하려고 한 거 맞아.
이안씨, 지안씨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죄송한 건...제가, 제가...

대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몸을 떨기 시작한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심각한 분위기에 누구도 반응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리고 밖에서 술에 취한 태형이 외치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태형

대길아~~대길아!!

서령

(퍼뜩) 이거, 이거 태형오빠 목소리 아냐?

서령이 일어나 인터폰을 든다.

서령

오빠? 태형오빠예요? 오빠가 여긴 어쩐 일로...

네 오빠, 잠시만요!

서령이 열림 버튼을 누르고 현관문 쪽으로 간다.

지안과 이안을 영문을 모른 채 눈만 꿈뻑이며 서령 쪽을 보고 있다.

대길은 놀란 눈을 좌우로 굴리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더니 초췌하고 아파보이는 모습의 태형이 들어온다.

서령

(반갑) 태형오빠! 오랜만이에요~

(짱긋) 아우 술냄새! 오빠 술 마셨어요?

태형

(술에 취해 엷된 목소리로) 서령아~~그래 오빠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대길이 왔지? 대길아~ 대길아 임마!! 형님 오셨는데 언능 나와봐야지!!

(대기를 발견하고) 어? 너 왜 그러고 있냐? 어이쿠 이런! 손님들이 계셨네?

(꾸벅) 안녕하세요~ 근데 서령아! 우리 대길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러고 있냐? 어? 흑시...?

대길이 별떡 일어나 태형의 멍살은 친다.

대길

(분노) 너 이 개새끼, 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 미친놈아 어디라고 오냐고 여길!!

태형

오피스텔 빼면 가게로 찾아 올 줄 알았더니, 아~무 소식이 없길래!

여기 있는 줄 알고 집 앞에서 며칠 기다렸다 야!

근데 웬 여자를 둘이나 달고 집에 들어가길래, 뭔일이 나도 나겠구나 싶었지!

그래! 다 얘기했어? 서령아, 다 들었어?

서령이 술 취한 태형에게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자 그 사이를 지안과 이안이 막고 선다.

태형이 대길의 멍살을 뿌리치고 세 사람을 마주하고 선다.

태형

아이, 안 잡아 먹어요 애기들아~

(이안을 유심히 보고) 야! 뭐야 이 재수 없는 꼬추새끼는 왜 옷을 기집애처럼 쳐 입고 지랄이야!

야 마대길, 너 씨발 취향이...아무리 (대길이 입을 막자) 에으읍!!

대길이 다급하게 태형의 입을 막자 태형이 대길의 손을 문다.

대길이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손을 떼다.

태형

(침을 튀튀하며) 아이 새끼, 손도 안 씻고 아으 짜...씨발.

대길이가 아직 얘기를 안했나 보네?

어이 거기 꼬추 달린 아가씨, 잠깐 나랑 방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지.

우리 대길이 비밀을 내가 알려줄테니까~! 단둘이 얘기 좀 하자구 알았지?

태형이 이안을 향해 다가오자 지안이 태형에게 리버블로를 먹이고 혹을 때려 쓰러트린다.

술에 취한 태형이 나자빠진 채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피를 튀!하고 뺏는다.

대길이 다급하게 테이블 위에 놓인 티슈를 꼭 채로 가져와 바닥에 흘린 피를 닦는다.

태형

야~이 새끼야! 너는 친구 주둥이가 터진건 신경도 안쓰고...! 씨발!

그런걸로 에이즈 안 옮아. 이 개새끼야! 다 알면서 오버하고 있어~ 이 새끼는!

뒤에 숨어 있던 서령이 앞으로 나서며 태형을 안쓰럽게 쳐다본다.

서령

(놀람) 에이즈요? 오빠...에이즈예요?

괜찮아요? 그럼 술 이렇게 마시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약은? 약은 드시고 계신거예요?

태형

(씹쓸하게 웃으며) 약? 글썸...약이라...대길아, 너 약 있냐?

서령이가 이렇게 걱정하자나, 대길아?

대길이 쓰러진 태형을 목을 쥐고 바닥으로 밀치며 주먹을 들어 태형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다.

태형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길을 바라본다.

대길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들어올린 주먹을 부들부들 떤다.

이내 포기하고 태형을 놓아주는 대길.

태형이 자신의 목을 만지며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태형이 자신과 거리를 두는 네 사람을 훑어본다.

태형

아~이거 재미없네! 이런 반응을 기대한 게 아닌데. 씨발!

대길아 나 간다! 수습 잘해라~

태형이 나가자 서령이 갑자기 주저앉는다.

지안과 이안이 놀라며 서령을 부축한다.

대길이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한다.

서령

(대길의 뒤에 대고) 오빠? 어디가? 오빠! 아까 태형오빠 말이 다 뭐야? 에이즈라니?

약이라니, 그걸 왜 오빠한테 물어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오빠?

대길

(한숨을 쉬며) 일단, 일단 태형이 놔부터 어떻게 하고 얘기해줄게.
저 새끼 저거 그냥 두면 더 큰 사고칠지도 몰라.
서령아, 오빠가 다녀와서 다 설명할게. 두 사람, 서령이 잠깐만 좀 부탁할게. 미안해.

대길이 밖으로 나간다.

#64. 대길의 집 앞. 밤.

태형이 옆구리와 얼굴에 손을 얹고 대길의 집 앞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다.
얼굴에 손으로 입에서 흘러나온 피를 속 하고 닦는다.
대문에서 대길이 나와 태형을 따라 걷는다.

대길

장태형! 거기 서봐! 얘기 좀 하자. 야! 어디 가는데~!

태형의 걸음이 빨라진다. 앞을 바라보며 태형이 소리친다.

태형

(목이 메이는) 어디가긴! 집에 가지! 너도 빨리 들어가! 서령이 많이 놀랬겠다.

대길

씨발, 그걸 아는 새끼가 이려고 나와? 일단 다시 들어가자!
너 병원은 다니고 있는거야? 입원해야 되는거 아냐?

태형

(허세) 대길아! 나 장태형이야~ 이런걸로 끄떡도 없다.
나 이딴걸로 안죽는다고!

대길

알았으니까 잠깐 서봐 야!

태형이 갑자기 골목을 뛰쳐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 뒤를 다급하게 대길이 쫓는다.

#65. 대길 집 근처 큰 길가. 밤.

태형과 대길이 골목길을 뛰쳐내려오는데 건너편에 택시가 서있다.
횡단보도의 파란불이 반짝이고 있고 태형이 건너편 택시를 향해 택시!를 외치며 뛰어 건넌다.
길을 건너는 와중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막 중앙선을 넘어선 태형을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승용차가 들이 박으며 태형이 튕겨져 날아간다.
깽! 하는 행인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태형이 바닥에 털썩 떨어진다.
대길이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멈춰선 차들 사이를 통과하며 태형에게 뛰어간다.
바닥에 누워서 입에서 피를 토해내는 태형을 대길이 안아 올리며 주변 행인들에게 소리친다.

대길

태형아, 태형아! 저기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며 촬영만 할뿐이다.

태형을 친 차에서 내린 남성 운전자가 통화를 하며 태형과 대길을 향해 뛰어온다.

운전자

네, 네! 여기 OO사거리요. 네 거기 맞아요. 빨리 와주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빨리요 빨리!

(전화를 끊으며) 저기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운전자가 상태를 보러 가까이 다가오자 대길이 황급히 손을 내젓는다.

대길

가까이 오지마세요! 떨어져! 떨어지라고!

태형이 콜록!하자 피가 분수처럼 피어오른다. 대길의 얼굴에도 피가 튄다.

남자가 황급히 전화를 건다.

운전자

저기요, 보험사죠? 네, 네! 제가 사고가 났어요. 여기가 OO사거리구요, 네네, 사람을 쳤습니다.

아뇨 신호 위반은 아니구요.

속도는, 조금 초과한거 같은데 씨발! 아~아뇨! 그게 아니고 일단 현장으로 좀 와주세요.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네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저 근데 혹시, 마대길씨 아니세요? 맞죠? 마대길씨! 이 분 아는 분이세요?

대길이 아무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태형을 안고 부들부들 떨고있다.

멀리서, 앰블런스의 사이렌 소리와 초록불이 다가온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나타나 태형을 넘겨 받으려하자 대길이 작게 중얼거린다.

대길

이 사람, 에이즈...에이즈 환자입니다...조심해주세요...에이즈 환자에요...이 사람...

대원

네? 네! 알겠습니다.

(무전기에 대고) 사고자 HIV 보균자라고 합니다. 전파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사고자 HIV 보균자라고 합니다. 이상.

혹시 마대길씨? 이 분 보호자 되십니까? 동행 가능하십니까?

대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형을 실은 침대를 따라 앰블런스에 탑승한다.

대길을 바라보는 태형의 얼굴이 비취지면서 앰블런스 문이 닫힌다.

#66. 소극장 앞 대학로 길가. 밤.

과거회상.

소극장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젊은 태형이 밖으로 나온다.

사람들 너머로 혼자 걸어가는 대길을 발견하고 부르려는 태형.
대길을 쫓아가 찰싹 달라붙는 서령을 발견하고 멈칫한다.
나란히 걷던 대길과 서령이 손을 잡는 것을 보고 씩씩한 표정을 짓는 태형.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사람들과 물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

#67. 대학로 술집 앞. 밤.

술에 취한 태형이 비틀거리며 술집에서 나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핀다.
이어서 술 취한 남자 둘이 나와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며 대화를 나눈다.

남자1

(두리번거리며) 야, 태형이 이 새끼 또 돈 안내고 토끼거야? 아~ 개새끼!
주인공이라고 대접 좀 해줬더니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씨발.
지만 돈 없어? 연극하는 사람들 다 돈 없고 배고픈거지.

남자2

형, 근데 그거 알아요? 태형이 새끼는 찌으로 고아라던데.
그 왜~ 맨날 객석 청소하는 개 있자나요, 대길이랬나?
암튼 개랑 같이 찌질방에서 청소하고 먹고 자고 한다는 거 같더라구요.

남자1

뭐? 그래? 아 씨발, 우리보다 더 한 새끼였네.
근데 연극은 주인공인데 실상은 거지새끼라니, 이게 더 연극 아니냐? (웃음)
아니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고아새끼가!
얼굴만 믿고 실력이 좇나 없으면 어찌자는거야 씨발.
지가 남아서 연습을 해야지 우리랑 술 마실 때냐?

남자2

그래도 그 얼굴 덕분에 우리 연극이 매번 매진되는거 아니겠어요?
막말로 서령이도 열심히는 하지만 실력이 애매하고,
애가 이쁘긴 한데 아직 고등학생이라 그 뭐랄까...

남자1

색기? 안그래도 내가 조만간에 남자가 뭔지 알려줄려고 했는데,
몇 번 데려다주면서 공을 들여놨는데, 요즘은 통 데려다 달란 소리가 없더라? 씨발...

남자2

형 모르세요? 아까 말한 그 대길이! 요즘은 개가 에스코트 하잖아요~
좃 만한 새끼가 지가 무슨 보디가드라도 된 줄 안다니까요. ㅋㅋ 웃겨요 아주~

남자1

그래? 아 씨발, 이거 이러다가 선수 뺏기는거 아냐?
좃, 하기사~ 뭐 태형이 새끼한테도 꿈쩍 안하는 년인데, 그 난쟁이한테 주겠냐~?
설마...백설공주와...뭐 그런 쪽이 취향? (웃음)

남자 둘이 키득 거리며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간다.
가만히 앉아 있던 태형이 담배를 끄고 일어나 술집으로 들어간다.

#68. 대학로 술집 안. 밤.

담배를 피던 남자들이 자신들의 테이블로 가 앉는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붙어 앉아 저마다 얘기를 나누고 있고,
태형이 느즈막히 나타나 테이블을 향해 다가간다.
남자1이 태형을 발견한다. 엉덩이를 움직여 태형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준다.

남자1

어우 우리 주인공! 아직 안가셨네? 편의점이라도 다녀왔어? 앉어 앉어~

태형

네 뭐 좀 사러 갔다 오느라고요.

남자2

뭐 어떤거 양말? 팬티? 아님 때타월?

일동이 웃음이 터진다.

태형

아뇨, 대일밴드랑 파스요.

남자1

응? 그건 왜? 누구 어디 다쳤냐?

태형이 소주병을 들어 남자1의 머리를 내려친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진다.

태형

아니 니들이 필요할거 같아서. 이 개새끼들아.

태형이 주먹으로 남자2의 얼굴을 갈긴다.
깨진 소주병을 위협적으로 휘둘러 사람들을 쫓아낸 뒤, 맥주병을 들어 남자1의 머리를 내려친다.
얼굴을 잡고 쓰러진 남자2를 힘껏 걷어차고 짓밟는다.
태형의 폭행이 계속되고 두 남자의 비명도 계속 된다.

#69. 대학로 소극장 안. 낮.

남자1과 남자2를 제외하고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대 위에 서있다.
그 앞에는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태형이 단장에게 빠따를 맞고 있다.
객석 청소를 하던 대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서 있다.

단장

(빠따를 내려치며)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별 거지 같은 새끼, 얼굴하나 보고 주인공 시켜줬더니 사고나 치고 말이야. 일어서.

태형이 일어서자 터진 입술과 멍든 눈가가 보인다.

단장

면상 꼬라지 봐라. 그걸로 먹고 사는 새끼가...너 이거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날로 아무것도 아닌거야 잉여라고 잉여! 알아?

어차피 그 얼굴론 무대서기도 글렀고, 오늘 가서 사과하고 합의 보고 와.

안그러면 넌 여기서 퇴출이야 알았어?!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고개를 까딱하고 돌아서 나가는 태형의 뒤에 대고 단장이 혼잣말을 한다.

단장

오갈데 없는 놈 받아줬더니...기어이 부모 없는 티를 내는구나...으이구!

태형이 발걸음을 멈추고 주먹을 꼭 쥐다.

자신을 걱정스레 쳐다보는 대길의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획 돌려 나가버린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

단장

할 수 없지. 대용이 니가 오늘부터 메인이고, 대용이랑 입원한 그 두 놈이 하던 역은...
씨발, 진짜 아프게 됐네~ 이거...어이 거기!!

단장이 바닥을 쓸고 있는 대길을 부른다.

대길

(놀라며) 네? 저요?

단장

그래 너, 일로 와서 이 대본 한번 읽어봐.

#70. 장례식장 안. 밤.

텅빈 장례식장 안에 상주 복장을 한 대길이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검은 옷을 입은 서령, 지안, 이안이 조문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인서트)

조문객이 모두 빠져나간 장례식장.

테이블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아 있다.

대길이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고 대길의 말을 듣는 서령이 울음을 터트린다.

지안이 일어나 대길을 향해 소리치고 이안이 지안을 말린다.

지안이 울음을 터트리자 결국 세 여인 모두 울음을 터트린다.

대길은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말을 이어나간다.

#71. 장례식장 안. 낮.

대길이 혼자 남아 태형의 영정을 마주보고 앉아 있다.
입구에서 수녀복을 입은 마리아 원장이 조용히 들어온다.
뒤를 돌아본 대길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자 마리아 원장이 손을 뻗어 대길을 안아주려 한다.
대길의 눈에서 눈물이 차오른다. 마리아 원장을 등지고 돌아서는 대길.
이윽고 대길이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트린다.
절하듯 엎드려 양손을 모아 비는 시늉을 하며 대길의 울음 소리가 장례식장에 퍼진다.
마리아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진다.

대길

(통곡하며) 원장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릴려고 한게 아닌데, 정말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엄마...엄마!!! 정말 잘못했어요...태형이랑 제가...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마리아 원장이 대길을 마주보며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린다.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72. 방송국 스튜디오 안. 밤.

10년 뒤.

#1.에서의 스튜디오와 똑같이 꾸며진 세트장에 10년 정도 나이든 모습의 진행녀가 다소곳이 앉아있다.
여성의 건너편에는 빈 소파가 자리하고 있다.

진행녀

벌써 10년 전이죠?
당시 이 프로의 진행자이자 국민개그맨으로 불리며 정상적 인기를 누리던 마대길씨.
하루 아침에 소식을 감춰서 세상을 관심을 모았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그를 다시 모시기 위해 이렇게 세트를 재연해 봤는데요.
그 동안의 이야기들을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재연해 놓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눈물이 차오르며 울먹)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대길씨 모십니다.

박수소리와 함께 시그널이 흘러나오며 병색이 역력한 얼굴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마대길이 걸어나온다.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는 진행녀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후 마대길이 자리에 앉는다.

진행녀

(눈물을 그렁대며) 마대길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목이 메이며) 우리, 10년 만이죠?

대길

(차분) 그렇습니다. 헤인씨, 10년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이렇게 다시 헤인씨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니,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가 헤인씨 한번 안아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들킬 것 같아서

(무릎에 뒹던 양손을 슬며시 고간에 얹으며) 아시죠?

관객들과 두 사람이 웃음을 터트린다.

진행녀

그래요, 대길씨. 이렇게 또 저를 울다가 웃기시네요.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국민개그맨 마대길씨의 갑작스런 잠적 이후가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인기만큼이나 소문이 정말 무성했는데요, 어느 하나 밝혀진 게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내신건가요?

대길

음...진행이 정말 매끄러워졌네요, 혜인씨. (웃음)

(진지)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씀드리려면,

우선 제가 왜 잠적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정말 많은 루머들이 돌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은 아니구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소문은 사실이 맞습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정적에 휩싸인다.

대길

당시에는, 저 역시도 지금의 여러분과 같이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양서령씨와의 이혼 루머 역시 사실이였구요.

비록 법원까지 가진 않았지만, 제가 양서령씨와 이혼 하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양서령씨의 연예계 은퇴 이유가 저를 돌보기 위함이었음을,

늦게나마 여기 계신 분들과 시청자 분들께 밝힐 수 있게 되어 다행,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셨을,

또 지금도 찌푸리고 계실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에 출간되는 저의 자서전 [거기서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또 역시 성실하게 답해드릴 생각입니다.

대길의 대사 중 ‘보다 자세한 이야기~’에서부터 소리 줄어들고, 카메라 멀어지며 스튜디오 전체를 비추며 화면 암전. 영화 끝.

엔딩 크레딧 영상

#1 이안의 집 안. 밤.

#59.에서 집으로 돌아온 대길이가발을 벗어 두상 마네킹에 다시 씌운다.

마네킹 옆에 놓인 이안의 가족사진을 발견하는 대길.

어린 지안이 상패와 메달을 목에 걸고 있고 부모님과 이안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이안은 남자교복을 입고 있는데 어린 이안의 얼굴에 현재의 이안 얼굴사진이 덧붙여져 있다.

지안이 입은 운동복에 일권체육관이라고 적혀있다.

#2 복싱체육관 사무실. 낮.

사무실에서 중년의 관장이 창 너머로 체육관에서 훈련 중인 관원들을 지켜보고 있다.

책상에 놓인 전화기가 울리고 관장이 전화를 받는다.

관장

여보세요, 일권체육관입니다.

대길

유지안 선수 아버님 되시나요?

관장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대길

안녕하십니까. 저, 개그맨 마대길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한번 뵈 수 있을까요?

#3 클럽 안. 밤.

무대 위에서 이안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손님들이 웃고 있다.

이안

(한껏 신이 나서) 내가 얼마 전에 태국을 다녀왔는데 말이야~ 그래 아! 내 소개를 깜빡했네.

여자보다 예쁜 여자가 되고 싶어서 진짜 여자가 된 유지안이라고 해요~ 모두들 안녕?

(환호하는 객석을 향해 우아하게 인사하며) 그래 이제 누나라고 불러도 돼~ 귀염둥이~(윙크)

아무튼! 내가 태국에서 정말이지 완벽한 내 분신과 함께 돌아왔는데 말야~ 그래!

그 동안 다리 사이에서 거추장스럽게 덜렁거리던 그 가짜는 버려두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처음한 게 뭘지 아니? 들어봐.

내 친구 중에 상택이라고 있어.

아주 멍청한 새끼데 대신 유일하게 내가 형근이일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는 놈이란 말이지.

아무 사이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마! 아무튼 내가 상택이를 찾아가서 말했지

“상택아, 너 주민번호 뒷자리를 1에서 2로 바꾸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러니까 상택이가

(목소리를 바꿔서) “뭘 또 호모새끼 같은 소리할라 그래?” 이러더란 말이지.

무식하다고 했지? 이 새끼는 게이랑 트젠을 전혀 구분하지 못해 그럴 생각도 없는 새끼라고!

암튼 상택이가 그러길래 내가 그랬지

(야릇한 표정으로) “상택아 그 숫자 하나를 바꾸는게 좇빠지게 힘든거야. 진짜 좇빠지게”
그러니까 상택이가 나를 응?이려고 쳐다봐 그래서 “됐다 니가 뭘 알겠니, 좇빠이 쳐 상택아”
이려고 돌아서 왔지? 웃기지? 내가 더 웃긴거 하나 알려줄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남자들이 나랑 눈을 마주치자나?
그럼 다들 자기꺼 잘 있나 확인하느라고 웃다가 웃음이 똑똑 끊기는거야.
이렇게 하하하하(뚝)하하하하 이려고 있다니깐? 정말이야!
거기 언니 남자친구 웃는 소리 잘 들어봐 하하하하(뚝)하하하하 맞지? 진짜지? 하하하하하하하

관중들과 이안이 웃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이안의 부모가 클럽 안으로 어색하게 들어온다.
부모가 무대 위의 이안을 발견한다. 이안 역시 부모를 알아보고 순간 굳어버린다.
이안의 아버지가 클럽을 두리번 거리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가버린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으로 입을 가린다.
이안이 다급하게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무대 아래로 뛰어 내려간다.

#4 실내 체육관 안. 낮.

링 위에서 입술이 터진 지안이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상대방과 겨루고 있다.
상대방 역시 땀에 젖은 얼굴로 코가 별걸게 부어있다.
상대의 원투를 더킹으로 피한 지안이 리버블로, 연속하여 라이트 훅으로 상대를 다운 시킨다.
심판이 경기 종료를 선언한다.
감독과 코치가 뛰어 올라와 지안을 안아 올리고 벨트를 자랑스레 들어보인다.
양손을 들고 승리를 만끽하는 지안의 눈에 링을 향해 걸어오는 이안과 부모님이 보인다.

#5 실내 체육관 안. 낮. 시간경과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는 체육관.
링 위에는 벨트를 든 지안과 부모 그리고 이안이 예전 사진과 똑같이 서서 사진을 찍고 있다.
플래쉬가 터지고 사진기를 내리는 사람은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쓴 대길이다.
대길이 마스크를 내리고 씨익 웃으며 화면 암전. 크레딧 끝.